

제2309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1년4개월 만에 귀국한 안철수 5



하현희 “디지털 전환으로 고객경험 혁신” 14

코스피(17일 전주 대비) **2250.57** (+44.18P)
코스닥 **688.41** (+15.38P)
환율(달러당 원화) **1159.40** (-1.9원)
금리(국고채 3년물) **1.433%** (+0.008%p)

文정권도 결국 빠진 ‘낙하산 유혹’

평시권력 금융지배 **금융공기업 ‘금융지식 묻지마’**

“윤종원 기업은행장 비토(거부)는 잘못이다.”

‘낙하산’ 비판을 받는 기업은행장 인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다. 윤종원 행장은 2일 취임 이후 본사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반대’를 내건 노동조합의 출근 저지 투쟁은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거졌던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의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 관련기사 2·3·16면

예금자 보호 및 금융 안정성 제고라는 공사 설립목적으로 출발한 예금보험공사. 그러나 이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문 대통령 측근으로 꾸려지면서 사실상 친정권 인사들이 조직을 장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추위는 기관 사장은 물론 사측을 견제하는 비상임이사과 감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공기업이 정부 입맛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20일 이투데이가 예보로부터 받은 ‘지난 10년간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월 예보 사장을 추천하기 위해 열린 임추위에는 비상임이사

3인과 민간위원 2인이 참석했다. 비상임이사 3명 중 2명은 남상덕 전 대통령비서실 금융비서관과 강계두 전 기재부 국고과장이다. 남 전 비서관과 강 전 과장 모두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로, 남 전 비서관은 고령화 및 미래사회담당 비서관을, 강 전

예금보험공사 ‘**文측근**’ 비상임이사 (*위성백 사장 임추위 참여 이사)

성명	주요 경력	기간
* 남상덕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금융비서관	2017년 3월~2020년 5월
김용기	文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2018년 3월~2020년 3월
* 강계두	참여정부 기재부 국고과장	2018년 5월~2020년 5월
류후규	文정부 포용적 금융·발전 포럼 대표	2019년 3월~2021년 3월
조재희	참여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2019년 3월~2021년 3월
지만수	文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2019년 3월~2021년 3월
박정훈	文정부 경찰위원회 위원장	2019년 12월~2021년 12월

※출처: 예금보험공사

文측근들 예보 임추위 장악 사장·감사 등 추천 ‘취락패락’ 비상임 8명 중 7명 유착 관계

과장은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다.

당시 임추위가 열리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문수석위원을 거친 위성백 사장의 임명이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공공기관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추위가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이 제정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하지만 임

추위가 친정부 인사로 구성되자, 사장 추천은 정부 입맛에 따라 결정됐다.

예보 내 임추위 위원뿐 아니라 비상임이사도 문 대통령 측근들이 차지했다. 현재까지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비상임이사 8명 중 7명이 문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재희 비상임이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이사는 지난해 10월 ‘대중의 꿈, 노무현의 노래 너머’ 출판기념회를 열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 경험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출판기념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박정훈 비상임이사는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경찰위원회 위원장이다. 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류후규 비상임이사는 포용적 금융·발전 포럼 대표로, 참여정부 시절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소장을 지냈다. 류 대표는 평소 문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이외에 지만수 비상임이사과 김용기 비상임이사는 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을 지냈다. 나경원 기자 contest@

한국 유통산업의 선구자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별세

1921. 11. 3 ~ 2020. 1. 19



日서 번 돈으로 산업화 기여 제과·호텔 ‘롯데왕국’ 구축 ‘재계 1세대’ 완전히 막내려

롯데그룹 창업자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19일 오후 4시 30분 향년 9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 관련기사 4면 1921년 경남 울산에서 5남5녀의 첫째로 태어난 신 명예회장은 1948년 일본 도쿄에서 롯데홀딩스의 전신인 ㈜롯데를 창업했다.

신 명예회장은 한국 유통산업의 산증인이다. 일본에서 성공한 신 명예회장은 일본에서 자금을 갖고 1967년 돌연 귀국해 롯데제과를 설립하며 롯데그룹 설립의 초석을 다졌다. 그는 이후 철저한미용료를 인수해 롯데칠성음료로 사명을 변경, 음료 사업에 뛰어들어 롯데백화점 본점을 열어 한국 최고의 백화점으로 일궈냈다. 실내 테마파크인 롯데월드와 롯데월드타워 역시 고인이 공들였던 사업 중 하나다.

신 명예회장은 일찌감치 자원이 부족한 국내 현실을 반영해 관광업에서 미래를 찾았다. 롯데호텔과 롯데월드, 롯데면세점으로 이어지는 관광산업을 일궈낸 것도 이 같은 신 명예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 건설은 신 명예회장의 30년 숙원 사업이었다. 1987년 매입한 부지의 첫삽

을 뜬 것은 2009년, 7년 뒤인 2016년에 준공했다. 신 명예회장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롯데월드타워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실이 된 자신의 꿈을 눈으로 마주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시계미스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장녀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준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 사실희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 등이 있다.

신준호 농심 회장, 신정숙 씨, 신선호 일본 식품회사 산사스 사장, 신정숙 씨, 신준호 푸르밀 회장, 신정희 동화면세점 부회장이 동생이다.

신 명예회장의 별세로 이병철 삼성 회장, 정주영 현대 회장, 구인회 LG 회장, 최중현 SK 회장 등이 재계를 이끌던 ‘창업 1세대 경영인’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경총 “열정·도전정신 큰 울림”

한편, 경영계도 신 명예회장의 별세 소식에 심심한 애도를 표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인이 롯데그룹을 성장시키면서 보여준 열정과 도전정신은 지금까지도 많은 기업인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기업가정신을 본받아 우리 국가 경제와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새해 재계 화두는 ‘비상경영’

롯데·CJ 등 사업재편·자산 매각 나서...LCC도 구조조정

기업들이 올해 ‘비상경영’을 화두로 설정하고 속속 경제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의 저성장 고착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 등 대내외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생존의 갈림길에 선 기업들이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등에 나서며 살아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그룹과 CJ그룹은 총수가 직접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5일 열린 ‘2020 상반기 LOTTE VCM’(사장단 회

의)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은 과거 우리가 극복했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지금,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지속 성장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CJ그룹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CJ그룹은 임직원에게 “2020년 경영을 대비해 그룹에서는 비상경영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경영시계 제로의 위기감을 공유했다. 또

수익성 확보를 우선으로 인력 재배치, 유흥자산 매각 등을 진행하며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항공 및 LCD(액정표시장치) 산업 등의 경정이 심화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기업들 역시 고강도 사업 조정에 들어갔다.

과당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저비용 항공사(LCC)들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지만, 매각까지 이뤄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하반기 비상경영을 선포했지만 결국 제주항공에 인수된다. 다른 LCC들은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 수익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그냥 신다” 209만명 ‘역대 최다’

구직포기 등 작년 12.8% ↑ ...5~299인 사업장 취업자 첫 감소

경기불황 여파로 지난해 ‘쉬었음’ 인구가 8년 만에 최대로 증가하며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종사자 5~299인 사업장 취업자 수도 첫 감소했다. ▶ 관련기사 6면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209만2000명

으로 전년보다 23만8000명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가 2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증가율(12.8%)은 2011년(13.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종사자 5~299인 규모 사업장의 취업자 수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5~299인 규모 사업장 취업자 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단위: 명) ■ 전년 대비 증감률



는 145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600명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4년 이래 처음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 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본지는 국내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현황’ 자료를 확보했다. 1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기관의 장과 비상임이사 그리고 인사 추천 권한을 가진 임추위 위원들은 대부분 집권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임추위 위원들은 금융과 관련된 전문성이 전무했지만, 여당과 정치적 연결 고리가 있거나 집권 정부와 특정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이에 본지는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추위 위원들이 어떻게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의 비상임이사로 취임할 수 있었는지 그 연결 고리를 짚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공기업 내 임추위 위원 대부분이 기관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퇴직 관료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관료들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타이틀을 받고 1년에 2~3번의 회의를 개최한 뒤 연간 약 3000만 원의 정해진 보수를 받았다. 각 공공기관이 평균 7명의 비상임이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 개의 금융공기업에서만 연간 2억 원의 국민 혈세가 비상임이사 보수 명목으로 허공에 뿌려지는 셈이다.

금융공기업 기관장 역시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청와대 출신 혹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했던 행정고시 출신, 한국은행 출신들이 장악했다. 퇴직관료들로 구성된 임추위 위원들은 정부에서 찍어 내린 사장 후보에 찬성표를 몰아줌으로써 기관이 정부의 입김

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일조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낙하산 인사는 기업 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 정부가 내려 보낸 인사는 기관의 장이 되더라도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생산성도 역행하게 된다”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몰이를 빚으면서까지 쫓는 이런 뿌리 깊은 관행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권 입맛 따르는 임추위… 관피아 낙하산 반드시 포함됐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청와대와 정치권에 서 내리쬐는 ‘낙하산’ 인사가 활개를 쳤다. 이투데이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임추위가 3번 열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임추위 위원으로 들어간 비상임이사 4명이 전부 관피아거나 정치권과 연결된 인물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이춘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동생 이강식, 정부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회원 변찬철,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재연, 전 중앙정보부 국내담당 처장 민병철이 장영철 사장을 추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속 배장웅, 전 경기도 의왕시장 이형구가 홍영만 사장을 추천했다. 3년 뒤에는 전 국회사무처 입법처장 민동기, 전 여성가족부 차관 김교식, 전 법제처장 이석연, 박근혜 경선 후보 대외협력위원장 송창달이 문창용 사장을 추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뒤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안태환과 임준길, 전 부산시 연세구 부구청장 정권영, 전 법제처장 제정부가 문성유 사장을 추천했다.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로 설립 목적을 정의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도 사정은 같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 한국금융연구원 이사장 윤동한,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상제, 전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기동,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용환이 황록 사장을 추천인으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박동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임무성, 전 행정자치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서보옥,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용환이 윤대의 사장을 추천 명단에 올렸다.

최근 이명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신임 사장에 내정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진 한국예탁결제원도 정권의 명분 없는 보은 인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예

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시기	기관장	성명(비상임이사)	주요경력
2015년 3월	곽범국사장	조홍식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양돈선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2018년 7월	위성백사장	남상덕	대통령비서실 금융비서관(관리관)
		강계두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기관장	행정고시 유무	주요경력	
김주현	행정고시(25회)	재무부	
시장이력	곽범국	행정고시(28회)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위성백	행정고시(32회)	기획예산처	



年 2억… 줄줄 새는 국민혈세

각 기관서 年 2~3회 회의 참석
비상임이사 보수만 3000만원

관행이 된 보은인사

대다수 금융공기업 사장 자리
기재부 고위직 퇴직 관료 차지

정권 입김에 기관들 ‘좌지우지’

퇴직 관료들로 구성된 임추위
정부 추천 인사 찬성표 몰아주기

전문가 “근본 원인은 제도 미흡”

법률상 기관장 조건 명시 불명확
실무 중심 법적 근거 마련해야

탁원에서 사장 추천을 위한 임추위는 10년간 2번 열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정동기, 전 대한주택공사 과장 장옥수,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 위원장 김재준이 유재훈 사장을 추천했다. 3년 뒤에는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조인호, 전 18대 국회의원 박대해,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 권오현이 이병래 사장을 추천인으로 선정했다.

주택금융공사 역시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 국회 보좌관 김기호, 민주국민당 조직국 부국장 이순홍이 김재천 사장을 추천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는 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장 허만철, 대통령자문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김태기,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김동주가 이정환 사장을 추천인 명단에 올랐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이기석이 김주현 사장을 추천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평가위원 이상일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양돈선이 곽범국 사장을 추천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에는 전 대통령비서실 금융비서관 남상덕과 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강계두가 위성백 사장을 추천했다.

◇금융공기업 사장은 보은인사… ‘법에 구체적 자격 명시해야’ = 대부분 금융공기업 사장은 기획재정부 고위직을 거친 관피아들이 차지했다. 집권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재취업 자리로 기관의 장을 내어주는 보은인사가 관행처럼 자리잡은 것이다.

김주현, 곽범국, 위성백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장영철, 문창용,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역시 기재부 출신이고, 홍영만 전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행정관 출신이다.

안택수 전 신용보증기금 사장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 윤대의 전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출신이고,

유재훈, 이병래 전 예탁결제원 사장은 기재부 출신이다. 서중대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국무총리실 세종기획단 부단장 출신, 김재천 전 사장은 한국은행 출신, 이정환 전 사장은 기재부 국고국 국장 출신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낙하산 인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도적 미흡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에서 기관장과 비상임이사, 감사에 대한 전문성 요건을 좀 더 촘촘하게 규정해야 한다. 현재 법은 기관장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이다. 예를 들면 금융업 3년 이상 종사를 필요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실무적 경험을 서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국책은행의 감사 요건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고,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해당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란에는 ‘국책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는 감사직은 그 임무의 특성상 경제 등에 대한 전문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에는 이러한 감사 임명 자격 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비전문가를 낙하산식으로 임명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어 감사 자격에 ‘경제, 재정, 금융, 법률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는 조건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동원 교수는 비전문가가 기관에 내려올 경우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낙하산 사장은 금융 지식, 경험이 모자라 정부나 외부 입김에 끌려 다니게 되고, 전문성이 없는 비상임이사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어서 기관 전체의 생산성이 무너지게 된다”면서 “결국 그 기관을 되살리기 위해 다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꼭두각시’ 임추위... ‘낙하산 행렬’ 정당성 부각 급급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임원추천위원회				주택금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시기	기관장	성명(비상임이사)	주요경력	시기	기관장	성명(비상임이사)	주요경력	시기	기관장	성명(비상임이사)	주요경력
2010년 9월	장영철 사장	민병철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2013년 6월	서근우 이사장	비공개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2014년 10월	김재천 사장	이순홍	민주국민당 조직국 부국장
2013년 10월	홍영만 사장	배장용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비공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2017년 11월	이정환 사장	유병삼	국가통계위원 및 경제분과위원장
		이형구	경기도 의왕시 시장	2016년 9월	황 록 이사장	윤동한	한국금융연구원 이사장			신용선	민주자유당 선전국장, 당보 편집국장, 교육원 부원장
		김성국	재경부 출신			이상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동주	김연장 법률사무소 변호사(현)
		김병일	재경부 출신			이기동	충청북도의회 의장				
2016년 9월	문창용 사장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2018년 2월	윤대희 이사장	박동수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민동기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임무성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			서보숙	행정자치부 자제평가위원회 위원				
2019년 11월	문성유 사장	안태환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김용환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임준길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기관장	행정고시 유무	주요경력
장영철	행정고시(24회)	기획예산처
홍영만	행정고시(25회)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행정관
문창용	행정고시(28회)	재무부 세제실
문성유	행정고시(33회)	기재부 국방예산과

기관장	행정고시 유무	주요경력
안택수	-	15, 16,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서근우	-	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 실장
황 록	-	우리은행 부행장
윤대희	행정고시(17회)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기관장	행정고시 유무	주요경력
유재훈	행정고시(26회)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이병래	행정고시(32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2013년 8월 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이사장에 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 실장으로 근무했던 서근우 씨가 내정된 소식이 전해졌다. 신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분류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 제26조 1항에 따라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이하 임추위)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순서였다.

그러나 후보자가 접수하기도 전에 내정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서 씨는 9월에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까지 통과해 10월, 신보 이사장으로 공식 내정됐다. 최근 논란이 된 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데뷔할 구성원을 사전에 선정하고 오디션을 보는 꼴과 유사했다. 이는 금융공기업 수장 인사 때면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신보의 사태에서 보면 임추위는 사실상 '거수기'로만 작동했다.

◇'무력한 임추위'... 정당성만 입증하는 역할 = 먼저 무력한 임추위는 '낙하산 인사'를 규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낙하산 인사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다. 늘 '논란'으로만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낙하산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낙하산 인사’ 정당화 모순

기업은행장 선임 임추위 불필요
‘정부 인사 논란’ 법적문제 없어

비상임이사직은 들러리

“사외이사 맡은 변호사·교수 등
월 최대 300만원은 일종의 팁”

줄 수 있는 게 임추위의 존재다. 하지만 현행 임추위는 법적 이유가 없다는 근거로 어떤 후보가 참여했고, 무슨 이유로 탈락하고 선택 받았는지 공개하지 않는다. 선정의 이유가 없으니 해석이 자유롭다. 해당 후보의 이력이 정권과 연결되면 무조건 낙하산 논란이 빚어지는 것이다. 설령 낙하산이 아니더라도 투명하지 않은 방식 자체가 낙하산 논란을 부추긴다. 김종석 정부위원회 의원은 “각 기관은 사장, 임원 선임 절차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며 “현행 위원회는 엉터리로 운영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낙하산 인사'에 정당성을 실

어주는 모순을 낳는다. 임추위가 애초에 존재하기 이전에는 주무기관의 장이 금융공기업 CEO를 임명했다. 이 경우는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분명해진다. 중간의 절차가 애초에 없다면 14일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라고 했던 말은 문제가 없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임추위 구성이 필수가 아니다.

그러나 임추위 구성이 필수적인 기관은 정부가 따로 낙하산 논란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임명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견제해야 할 '비상임이사' 그저 한 자리에 불과 = 무력한 임추위는 비상임이사를 그저 하나의 '떡거리'로 만든다.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기관의 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의 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임추위 자체가 무력하기 예 비상임이사로 기관을 견제할 사람이 뽑히지 않는다. 그저 청탁의 자리로 여겨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캠프 문창용 사장을 임명할 때 임추위의 위원장으로 있었던 박시룡 전 국민대 교수는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에게 '사외이사' 자리를 청탁했던 인물로 유명하다.

직·간접적으로 공기업 사외이사를 경험했던 교수들은 이들의 무력함을 공동으로 꼬집는다. 김종석 의원은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한 달에 200만~300만 원 정도 준다. 일종의 팁”이라며 “이사회에서 입씨름이 벌어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창균 교수도 “비상임이사가 안건에 반대한다고 해도 애초에 그런 사람을 거기에 넣지 않는다. 설사 반대하더라도 그 사람 한 사람뿐이다”라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비상임이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감시 목적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임명 자체부터 CEO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 목적을 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권은 임추위 문제를 보완하기 위

해 정권 초기, 금융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에 금융행정혁신위를 구성해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권고안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혁신위도 임추위 운영 등에 대해선 '일관된 절차 진행', '합리적 개선 강구'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당시 혁신위에 참여했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추위 운영에 대해 “대안이 없으니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같은 시기 혁신위에 참여했던 박창완 정릉 신협 이사장은 “혁신 보고서에서 권고서만 채택하고 혁신하고 있는냐는 점검이 되지 않는다”라며 “혁신위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하라고 던져주는 내용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나경연 기자 contest@

하 고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 (향년 99歲)께서
2020년 1월 19일 (음 12월 25일)
별세 하셨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영 발 빈
결 식 인 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07시
롯데콘서트홀(롯데월드몰 8층)

며 딸 아 부
느 들 인
시게미쓰 하츠코
신동주 신동빈
신영자 신유미
조은주 시게미쓰 마나미

롯데그룹 葬 公 告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 (향년 99歲)께서
2020년 1월 19일 (음 12월 25일)
별세 하셨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영 결 식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롯데콘서트홀(롯데월드몰 8층)

롯데그룹 장례위원장 황각규 송용덕

※ 조화 및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연락처
빈소 02-3010-2631
회사 02-7501-7032·7028(홍보팀)

롯데그룹 임직원 일동

검사업 시작해 '재계 5위 롯데' 일군 '유통巨人'

#1 1940년대 일본으로 건너간 빈털터리 20대 청년이 1960년대 초 성공한 사업가가 돼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리고 그가 국내 제과 선두 기업인 롯데제과를 설립한 것이 1967년이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한국에서의 첫 시작은 롯데제과다. 군것질거리가 부족했던 1960년대 롯데제과의 검과 과자는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다. 이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제과를 설립하며 '기업을 통해 사회 및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기업이념을 지켜낸 행보다.

#2 신 명예회장의 신념은 롯데그룹의 역사에서도 묻어낸다.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를 늘려 삶의 질을 바꾸겠다는 그의 신념은 현대식 쇼핑몰인 롯데백화점의 개관과 실내 테마파크 롯데월드의 건립으로 이어진다. 롯데호텔, 롯데월드타워까지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의 질을 높이는 그의 행보는 계속됐고 이는 한국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1921년 경남 울주 농가 출신
1941년 혈혈단신 일본행
1948년 日서 (주)롯데 창업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했다. 신 명예회장은 53년 롯데그룹의 역사다. 신 명예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걸쳐 식품·유통·관광·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기업가다. 맨손으로 검 사업을 시작해 롯데를 국내 재계 순위 5위 그룹으로 성장시킨 '거인'으로 평가받는다.

◇일본 고학생의 금의환향 = 신 명예회장은 1921년 경남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의 농가에서 5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언양보통학교(초등학교)와 울산농업보습학교를 졸업한 후 함경북도의 명천국립중 여장에서 1년 동안의 연수 과정을 마친 그는 19세 나이에 경남 도립 종축장에 취업하며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국민 생활에 도움 주겠다"
1967년 롯데제과 설립
관광·유통·화학·건설 확대

일제강점기인 1941년 혈혈단신 일본으로 건너가 신문과 우유 배달 등으로 고학 생활을 했다. 1944년 선반(철삭공구)용 기름을 제조하는 공장을 세우면서 사업을 시작했으나 2차 대전이 공장을 전소하는 시련을 겪었다. 일본에서 비누와 화장품을 만들어 재기에 성공한 그는 검 사업에 뛰어들었고 1948년 6월 (주)롯데를 설립했다.



① 롯데호텔 설립 추진 당시 회의를 주재하는 신격호 명예회장
② 1965년 국내 입국하는 모습
③ 1979년 롯데쇼핑센터(현 롯데백화점) 개관식
④ 1989년 롯데월드 개관식
⑤ 2011년 롯데월드타워위 공사현장 방문 모습
사진제공 롯데그룹

'롯데'는 그가 문학청년의 꿈을 키우던 시절에 읽은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이 소설은 독일의 문호 괴테가 지은 작품으로 여주인공인

1979년 롯데백화점 개점
국내 쇼핑 문화에 새바람
국내 최고층 '월드타워' 건립

사롯데의 애칭이 바로 롯데였다. 신 명예회장은 "주목(株木)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 했는데 사롯데 역시 문명이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이라며 기업명을 롯데로 명명했다. 이후 롯데는 초콜릿, 캔디, 비스킷,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부문에도 진출해 성공을 거뒀다. 일본에서 사업을 일으킨 신 명예회장은 고국으로 눈을 돌렸다. 1950년대까지는 한일 간 국교가 이뤄지지 않아 신 명예회장은 꿈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1960년대 한·일 수교 이후 한국 투자 길이 열리자 그는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했다. 제과산업은 형편이 여의치 않은 어린이들에게 좀 더 풍족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고 싶다는 의지에 따른 결정이다.

◇한국인의 삶 바꾼 유통의 거장 =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는 신 명예회장의 신념은 먹거리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 등으로 넓혀갔다. 국내 최대 식품기업의 면모를 갖춘 롯데는 관광과 유통, 화학과 건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기필코 관광입국을 이뤄야 한다"는 신념으로 롯데호텔과 롯데월드, 롯데면세점 등 관광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1979년 개점한 롯데백화점만 봐도 처음부터 세계적 수준의 인테리어를 갖춘 백화점으로 탄생해 국내 쇼핑 문화와 생활 문화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 건설도 신 명예회장이 1987년 "잡실에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며 대지를 매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허허벌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호텔과 백화점, 실내 테마파크 등 대규모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밀어붙였다. 대규모 쇼핑 타운으로 조성된 백화점을 비롯한 쇼핑몰은 우리 국민들과 외국인 관

신동주·신동빈 '형제의 난'
한·일 롯데 경영 완전 손떼
경영비리 혐의 구속 위기도

광객들 모두가 즐겨찾는 명소로 부상했다. 그는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최초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경영권 분쟁으로 얼룩진 쓸쓸한 말년 = 롯데를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냈지만, 신 명예회장의 말년은 자식들의 경영권 분쟁과 각종 비리혐의로 인한 구속으로 순탄치 않았다. 2015년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신 명예회장은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국내 계열사 이사직에도 퇴임해 형식적으로도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 특히 경영권 갈등 속에 정신건강 문제도 드러났고, 90대 고령에 수감 위기에 처하는 등 수난을 겪기도 했다. 법원이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없다며 사단법인 선을

신격호 명예회장 일대기 및 롯데그룹 연혁

1921년	울산 출생
1941년	일본행
1948년	일본 롯데 설립
1967년	한국 롯데제과 설립
1973년	호텔롯데 설립
1974년	칠성한미음료(현 롯데칠성음료) 인수
1979년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 인수
1979년	롯데쇼핑센터(현 롯데백화점 본점) 개점
1979년	롯데리아 설립
1981년	롯데물산 설립
1982년	롯데자이언츠 설립
1989년	롯데월드 개관
1994년	코리아세븐 인수
2003년	롯데카드 출범
2006년	롯데쇼핑 기업공개, 우리홈쇼핑 인수
2009년	롯데월드타워 착공(2016년 준공)
2012년	롯데하이마트 출범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일본 롯데홀딩스 등기이사 해임
2016년	황령 배임 혐의로 기소
2016년	법원, 한정 후견 개시 결정
2017년	롯데그룹 지주회사 전환
2019년	징역 3년·벌금 30억 원 확정, 형집행정지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신 명예회장은 두 아들과 함께 경영비리 혐의로 2017년 12월 징역 4년 및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남주현 기자 jooh@

LG 구인회서 롯데 신격호까지... 막내린 재계 '창업 1세대'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19일 별세하면서 재계 '창업 1세대 경영인'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대표적으로 고(故) 구인회 LG그룹 창업 회장(1969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1987년), 고 최정호 SK그룹 창업회장(1998년)은 2000년 이전 타계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은 2001년, 대한항공 창업주인 고 조중훈 한진 회장은 2002년 별세했다.

가장 최근에 별세한 1세대 경영인은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다. 지난해 12월 별세한 고 김우중 회장은 창업 30여 년 만에 대우를 자산 규모 국내 2위의 재벌 기업으로 키워냈지만, 수직조원의 분식회계와 10조 원가량의 사기대출 등 부실 경영으로 대우를 파산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창업주 아버지를 이어 '한강의 기적'을 선두에서 이끈 2세대 기업인들 역시 대

부분 역사 속으로 떠났다. LG그룹 2대 회장으로 1970년부터 25년간 LG를 이끌었던 구자경 LG 명예회장은 지난해 12월 9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재계의 잇따른 부고로 고령의 다른 기업인들의 근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먼저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6년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1세대로 분류되는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올해 81세로 고령인 편이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맡아 '재계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법원대에서는 정주영 창업주 회장 아들인 2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82세로 고령에 속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정 회장은 2016년 말 최순실 정문회에 참석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 이상설도 제

기되고 있다. 정몽근 현대백화점그룹 명예회장 역시 78세로 고령이다. LG가(家)에서는 고 구자경 명예회장 형제인 구자학(90) 아워홈 회장과 구자두(88) LB인베스먼트 회장, 구자일(85) 일양화학 회장이 80세를 넘겼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도 올해 모두 85세로 나이가 많은 편이다. 송영록 기자 syr@

4·15 총선 레이스 본격화... 여야 '공천 작업' 가속

민주당, 전략공천지 15곳 확정
투기지역 2주택 보유 '매각서약'
한국당, 대대적 '물갈이' 예고
범보수 진영 통합 논의 주목
복귀 안철수, 독자노선 걸을 듯

4·15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각 당이 인재 영입과 공약 발표 등으로 분위기를 띄우는데 이어 총선의 '본게임'이라 할 수 있는 공천 작업으로 일정표가 옮겨가는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현역 의원 불출마지를 포함한 15곳의 전략공천지를 확정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심사 작업에 착수했다. 사람을 고르는 공천 작업을 하기 직전 단계에서 '투입 지역'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13곳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했다. 20일부터는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먼저 총선 후보를 공모한 뒤 1월 30일~2월 5일 서류 심사, 2월 7~10일 면접 등의 일정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모 시 후보자가 투기지역 등 일부 지역에 2가구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향후 2년 내 매각하겠다는 '매각서약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 차원의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도 서약서에 포함됐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한 자유한국당은 공천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칼자루를 쥐게 된 김 위원장은 첫 메시지부터 대대적인 '물갈이' 의지를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칼날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공관위원장을 수락할 때 번민하고 고민했다"며 "새로운 물고기를 많이 영입하겠다.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천 혁신과 함께 보수통합을 견인하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보수당 등 범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이

다. 결국 통합 논의의 핵심은 공천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보수통합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일단 통합신당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물밑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도 여야 정치권의 총선 선행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같은 해 9월 출국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4·15 총선을 80여 일 앞둔 가운데 안 전 의원이 어떤 행보를 걸을지에 따라 정계개편 구도에 상당한 파장이 일 수 있다.

안 전 의원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에 복귀해 당을 '리모델링'할 것이라는 관측과 '독자노선'을 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보수진영에서도 그를 향한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안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답론'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며 거취를 바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안철수(왼쪽)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부모와 함께 한 어린이로부터 귀국 축하 선물과 함께 '안철수 아저씨 환영해요'라고 적힌 편지를 받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우회 파병'으로 금강산관광 물꼬 트나

靑 "호르무즈 파병 대신 아덴만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北 새 외무상에 강경파 리선권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한국군 독자활동'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은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해협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기울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파병 문제가)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 실장은 "국제해양안보구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은 결정된 바 없다"며 "한-이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구상은 미국의 파병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다는 명분을 챙기는 동시에 이란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한 뒤로 금강산 관광과 대북 개별방문 등의 개별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과거 사례를 봐도 2003년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뒤로 미국이 6자회담 구상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

한편, 미국 NK뉴스는 18일(현지시간) 평양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리용호 외무상이 교체됐으며, 새로운 외무상에 리선권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기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종부세 최고 4%... 보유세 300%로 상향

e법안 Zoom

興 '종부세 강화 법안' 내달 처리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도 추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마지막 쟁점 법안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다. 민주당은 애초 5월 말 통과를 목표로 했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법안은 '12·16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경우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4.0%로 올리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상향하

는 등의 보유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유세 인상을 통해 다주택 세금 부담을 높여 기존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누진을 강화한 종부세 법안"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도 크다. 김 의원은 16일 당정책조정회의에서 "3채를 소유한 사람과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5채 보유한 사람에게는 그 주택이 주거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한 같은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3주택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해마다 6월 1일 공시가 기준으로 정해지고, 납부 시점은 12월이다. 올해 인상된 세금을 부과하려면 5월 말까지 종부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비할 바 없는 아름다움, 수려한으로 선물하세요

수려한 선물로 사랑하는 분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지켜주세요

천삼 선유 3종 특별 기획 15만원



천삼 선유 수액 130ml | 천삼 선유 유액 130ml | 천삼 선유 크림 25ml

추가 증정 천삼 선유 잔액 10ml x 4ea

효비담 발효 3종 특별 기획 11만 5천원



효비담 발효 수액 150ml | 효비담 발효 유액 150ml | 효비담 발효 크림 25ml

추가 증정 효비담 발효 수액 20ml | 효비담 발효 유액 20ml | 효비담 발효 아이크림 10ml | 효비담 발효 크림 10ml | 효비담 인티에이징팩 40ml | 인티에이징 앰플리케이션

<http://www.sooryehan.co.kr> | [sooryehanofficial](#) | [sooryehan,official](#) | 전국 대형마트, 보떼(LG유통물류전문점), 네이처마켓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탈지방화·지역공동화가 문제인데... 번지수 틀린 '1인 가구화' 대응방안

청년층 '수도권 쏠림' 놔둔채, 되레 주거 지원 확대

기재부 TF회의서 연령·계층별 '삶의 질' 개선에 집중키로
"정부 근본 문제의식 부재... 출산을 포기 이어 가족화 포기"

정부가 1인 가구 증가세를 완화하는 대신, 이들의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데만 집중하기로 방향을 잡아 근본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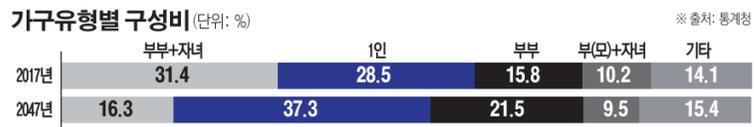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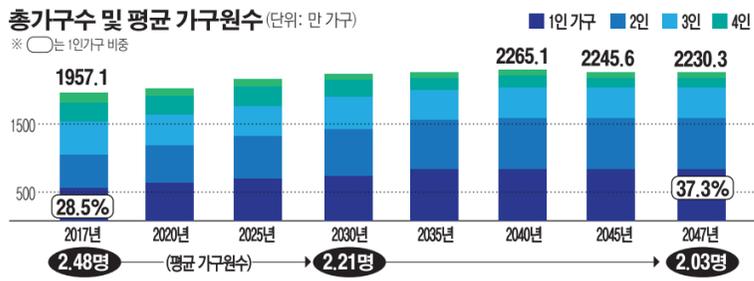
정부는 17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1인 가구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5월에 청년·중장년·노년 등 연령계층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청년에 대한선 소형 임대주택 지원, 중장년에 대한선 취업·여가활동 지원, 노년층에 대한선 의료·안전 등 복지 지원이 주요 대책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방향은 기존의 제도들을 다인 가구 위주에서 1인 가구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다. 김 차관은 "1인 가구를 지원해줄 경우 가족 해체가 심화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러한 이유로 이미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 형태인 1인 가구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며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의 독립, 배우자와의 사별 등 비자발적 사유로 1인 가구가 된 노년층에 대해선 TF 방식의 지원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소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기 대책으로 가구구조 변화세를 거스르기 어려운 만큼, 적응력을 키워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에서 출산율 제고를 포기한 데 이은 가족화 포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1인 가구화는 그 배경부터 다른 연령대와 상이해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층의 1인 가구화는 저출산·고령화나 비자발적 관계 단절보다 탈지방화 및 수도권 쏠림, 지역 공동화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지방 청년이 도시로 나가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1~2인 가구가 된다. 또 도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은 1인 가구가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시도별 1인 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은 전남이 50.2%, 전북은 42.2%, 경북은 41.9%에 달했다. 반면 세종과 서울, 대전은 39세 이하 비중

이 각각 56.2%, 47.7%, 47.1%였다.

청년의 탈지방화가 시지역에선 청년 1인 가구 증가로, 도지역에선 노년 1인 가구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 등이 확대돼도 이런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차칭 '1인 가구로 살기에 적당한 정도'의 지원이 저출산·고령화와 탈지방·탈가족화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에서 자라 대학까지 나온 청년들도 취업은 서울에서 하려고 한다"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집을 얻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삶을 살겠지만, 누가 신혼생활을 원룸에서 시작하고 싶겠냐"고 말했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완화하면 1인 가구 문제도 완화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선 지역별 대책이 필수적이다. 그는 "수도권·중산층 중심의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우주 자립' 향한 도전 1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서 연구원들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1단 체계개발모델(EM)을 점검하고 있다. 1단 체계개발모델 뒤로 1단 인증모델(QM) 연료탱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장면 5000원·칼국수 7000원·냉면 9000원... 가파르게 오른 '외식 물가'

삼겹살 제외 모든 메뉴 오름세

대표 서민 음식인 자장면이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5000원을 넘어섰다. 칼국수 한 그릇도 7000원에 달했으며 냉면은 9000원에 육박했다. 직장인 대표 점심 메뉴인 김치찌개 백반도 6400원을 넘어서며 이들 외식 메뉴에 더 이상 서민 음식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무색해졌다.

19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즐겨 찾은 대표 외식음식 8개 가운데 7개 가격이 1년 사이에 올랐다.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품목은 자장면이었다. 지난달 서울 지역의 자장면 그릇당 평균 가격은 5154원으로 5000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4808원보다 무려 7.19% 올랐다. 서울 지역의 자장면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5000원 선을 넘어섰다.

김밥 한 줄 가격도 지난달 2408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6.12% 뛰었다.

칼국수는 3.41% 오른 7000원, 김치찌개 백반은 3.7% 오른 6462원에 달했고 냉

면 1그릇 가격은 1.74% 오른 8962원으로 9000원을 넘어설 기세다.

8개 품목 가운데 삼겹살만 200g당 가격이 1만6325원으로 3.2%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돼지 사육량이 증가한 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영향으로 삼겹살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역별 가격 차도 컸다. 지난달 기준 냉면 가격은 가장 비싼 서울(8962원)과 가장 싼 제주도(7000원)의 가격 차가 2000원 가까이 벌어졌다.

비빔밥은 가장 비싼 서울이 8769원으로 가장 저렴한 경남(6800원)보다 2000원 가까이 더 비쌌고, 김치찌개 백반의 경우 제주가 7625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전이 61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삼겹살 200g 가격은 서울(1만6325원)과 강원도(1만2000원)의 가격 차가 4000원 넘게 났고 자장면은 경남(4900원)과 제주도(5750원)가 850원 차이가 났다.

삼계탕은 서울(1만4462원)에서 가장 비쌌고 충북(1만2143원)에서 가장 싼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현실화한 '인구절벽'... 4년 뒤 취업자 마이너스 전환

정부, 고용시장 지표 취업자 수 대신 고용률로 전환

현재의 고용률을 유지할 경우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4년 뒤인 2024년에는 취업자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앞으로는 취업자 수 대신 고용률을 고용시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전환하기로 했다.

19일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토대로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60.9%)이 계속된다고 가정 한 결과 2024년에 취업자는 전년보다 1만 9439명 줄어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취업자 감소 폭은 확대돼 2027년 10만 명(10만1750명), 2033년 20만 명(21만1034명), 2040년 30만 명(30만1589명)을 돌파하고 2045년 33만 9392명으로 정점을 찍고 점차 나아진다.

이런 분석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2019년 기준 1세 단위 고용률을 산출한 뒤, 이를 장래인구추계의 1세 단위 추계 인구수와 곱해 취업자 수를 추계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수 대비 취업자의 비율이다. 고용률을 인구수와 곱하면 취업자 수가 나온다. 고용률이 유지돼도

취업자가 2024년부터 감소로 전환하는 것은 인구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5세 이상 인구 연평균 증가 폭은 1990년대 54만9000명에서 2000년대 45만4000명, 2010~2018년 43만1000명에서 지난해 32만2000명으로 떨어졌다.

또 장래인구추계상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5만6000명 감소하면서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생산가능인구는 올해에는 23만1000명 감소하고 2024년에는 33만8000명 줄어 30만 명대 감소가 나타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취업자는 2015년 전년 같은 달보다 28만1000명 증가했고 2016년 23만1000명, 2017년 31만6000명, 2018년 9만7000명, 지난해 30만1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2017년 60.8%, 2018년 60.7%, 지난해 60.9%로 비슷한 추세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시장을 판단할 때 취업자 증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을 토대로 고용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정부



가 고용시장 지표를 고용률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확한 고용시장 판단을 위해 취업자 증가 폭이 아닌 고용률 중심의 지표 전환을 대비하겠다"며 이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인구 변화 효과를 배제해 고용시장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기존 지표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에 고령 연령대를 포함하는 등 새로운 지표 개발도 국제노동기구(ILO)와 논의를 통해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작년 반도체 수출 비중 17.3%로 하락

10대 상품 3042억 달러 수출... 자동차 2위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밑돌았다. 반면 자동차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친환경 경차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며 한국 전체 수출 내 순위가 전년보다 한 계단 위로 올라서며 2위를 탈환했다.

19일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상품 수출액은 3042억3000만 달러로 총수출액(5423억30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58.5%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로 수출 품목이 그만큼 다양화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은 939억 4000만 달러로 전년의 1267억1000만 달러보다 25.9%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3%로 2013년부터 7년 연속 1위를 지켰지만 비중은 2년

만에 다시 10%대로 내려앉았다. 반도체는 2018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9%로 20% 선을 돌파한 바 있다.

지난해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한 품목은 자동차이고 비중은 7.9%였다. 자동차 수출액은 408억9000만 달러에서 430억 4000만 달러로 5.3% 증가하면서 2017년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018년 석유제품에 밀린 이후 3년 만에 다시 2위를 탈환했다.

자동차는 수출 대수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1.9% 감소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SUV나 친환경차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 금액은 늘었다.

석유제품 수출 비중은 7.5% 3위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자동차부품 4.2% 등 순이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우리에게 혁신이 자연스럽다

#친환경 자동차 소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자연을 생각할 순 없을까?

SK가 친환경 소재로 혁신합니다

더 가볍고 오래가는 초경량 소재로
자동차의 무게는 덜어주고,
배출가스를 줄여줍니다

우리의 기술이 자연이 바라던 혁신이 되도록

SK 이노베이션

글로벌 증시 '美 IT 공룡' 독식... '테크버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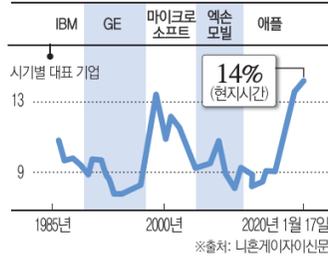
애플·MS·알파벳·아마존·페이스북 '빅5' 시총, 美 증시 14% 차지 비디지털 기업 성장방해 지적도

글로벌 증시에서 디지털 강자들의 '승자 독식'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등 미국 시가 총액 상위 5개사가 전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로, 36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19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이 분석했다.

전 세계 시장을 살펴봐도 시총이 1000억 달러(약 116조 원)로 1년 만에 40% 이상 증가했다. 적자에 허덕이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대가 후퇴했지만 디지털화라는 변화의 물결을 타면서도 제대로 이익을 증가시키는 IT 대기업에 대한 인기는 한층 강

미국증시에서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지고 있다. 주가 상승 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테크버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7일 2만9348.10으로,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과 마·중 무역갈등 완화로 투자자들의 돈이 증시로 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애플 주가는 최근 1년간 2배 이상 폭등해 시가총액이 현재 1조3979

전 세계 증시 시총 1000억 달러 클럽 기업 수



억 달러로 미국 기업 1위를 달리고 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17일 미국 기업 중에서는 애플과 MS, 아마존에 이어 네 번째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 됐다.

소수 대형주가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것이 최근 미국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다. 닷케이 분석에 따르면 애플을 포함한 시총 상위 5개사 합계는 총 5조2500억 달러(약

557조 엔)로, 도쿄증권 거래소 1부 전체 시총인 약 660조 엔에 육박한다. 미국증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14%로 데이터 집계가 처음 시작된 1984년 이후 36년 만에 최대라고 닷케이는 강조했다.

이런 승자독식 현상은 전 세계 증시에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기준 세계증시에서 시총이 100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은 114개사로, 지난 2018년 말의 79개사에서 44% 늘었다. 특히 IT 버블 시기인 1999년의 47개사,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의 72개사 등 과거 호황기와 비교해도 '1000억 달러 클럽'에 속한 기업 수가 훨씬 많다.

특히 이런 호황을 주도하는 것이 디지털 강자들이다. 다국적 컨설팅 업체 액센추어의 줄리 스위트 최고경영자(CEO)는 "디지털 변화와 기업 변혁이라는 맥락의 초반에 있는 가운데 우리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컨설팅이 매출의 65%를 차지하게 됐다"며 IT 기업 강세 현상을 설명했다.

지난달 기업공개(IPO)를 실시하고 나서 세계 최대 시총 기업으로 떠오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와 같은 '중후장대형(重厚長大型)' 산업의 강자도 있지만 디지털 시대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고성장세의 IT 기업들이 훨씬 눈에 띈다고 닷케이는 평가했다.

중국에서도 알리바바 그룹 홀딩과 텐센트 홀딩 등 IT 대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다만 이런 승자독식 현상은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가운데 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닷케이는 지적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완화를 계속해도 글로벌 경기회복에 제동이 걸리지 않아 일부 잘나가는 기업에만 자금이 쏠린다는 분석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日 안보조약 서명 60주년 아베 신조(앞줄 오른쪽)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이쿠라 영빈관에서 열린 마·일 안보조약 개정 60주년 행사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과 손녀 매리 진 아이젠하워(가운데), 중순자 메릴 아이젠하워 및 워터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60년 전 이날 아이젠하워 당시 미국 대통령과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일본 총리가 현행 마·일 안보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조항이 핵심으로 전후 일본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의 주춧돌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도쿄/AFP연합뉴스

국채 팔아 돈잔치 美 '역풍' 우려

이자비용, 5년 후엔 국방비 웃돌 듯... 재정 리스크 가중

미국 정부의 재정 확장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산더미처럼 쌓인 부채로 인해 나중에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조2000억 달러(약 1390조 원)에 달해 선진국 전체의 80%를 차지하게 됐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16년 대비 50% 증가했다. 의료비 등 세출이 증가한 것 외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감세에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닷케이는 지적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조9000억 달러)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미국의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00%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높다고 닷케이는 지적했다. 미국의 연간 국채 발행액은 1조 달러가 넘는다.

그 결과 미국이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국의 의회예산

국에 따르면 올해 정부 이자비용은 4600억 달러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5년에는 7240억 달러로, 국방비(7060억 달러)를 웃돌 전망이다.

이렇게 미국이 부채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금리에 굶주린 세계 투자자들은 앞다퉈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새해 들어서도 주가가 상승하지만 미국 국채 수요가 강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높다.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국채 금리는 현재 제로(0)%나 마이너스 금리에 잠겨 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미 국채 규모는 지난해 1~11월에 4692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2018년보다 약 8배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그만큼 재정 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재정이 지속 가능한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브렉시트 최대 희생양" 영국 車업계 비상

새 EU 규정 엇과 맞지 않아... 가스배출 기준 맞추려 막대한 비용 발생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가 이달 말 단행되는 가운데 최대 희생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 자동차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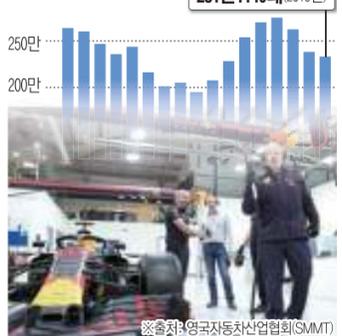
자비드 영국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적용되는 영국 내의 모든 규정들이 유럽연합(EU)의 규정과는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많을 것이며, 그런 변화가 일부 기업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서 "기업들이 이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동차업계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영국자동차제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영국 제조업과 소비자 선택에 악영향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자동차업체들은 단일 규정 아래 EU와 영국 전역에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지만 브렉시트 이후는 상황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EU 규정에 의하면 가스 배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차량 개조, 충돌 시

영국 신차 판매 추이



험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영국을 포함한 단일 시장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강화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다.

만일 EU 기준을 버리고 영국 자체 규정에 따르게 되면 영국에서 판매를 원하는 기업들은 현지 규정에 맞추고자 별도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 즉 영국 시장에 맞는 차량 생산에 따른 비용이 새롭게 발생하게 된다.

시장 축소도 우려된다. 유럽 자동차

시장의 판매량은 연간 1500만 대 규모인데 반해 영국 시장은 230만 대에 못 미친다. 영국 자동차업계가 EU 규정에 남아 있을 원하는 이유다.

마이크 호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 대표는 "앞으로 EU에서 독립한 뒤에 높아질 관세와 다른 무역 장벽을 피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 대상국과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의 비용이 크게 증가해 수십억 달러가 추가로 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영국 자동차업계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판매 감소와 투자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영국 자동차업계의 유럽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다. 자동차 관련 부품의 수입과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영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80%가 수출되는데, 이 중 절반이 EU로 간다.

지난해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영국 자동차업계에 악재로 작용했다. 재규어랜드로버는 4500명을 해고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중 우한 폐렴 '제2의 사스' 되나

확진 62명으로 늘어... 英 연구진 "실제 1700명 넘을 수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람 간 전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폐렴 확산 공포 비상이 걸렸다.

19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중국 우한위생건강위원회는 이날 17일 하루 동안 우한에서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누적 환자 수가 62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중국 내에서 확인된 우한 폐렴 환자 중 2명은 사망했고 8명은 중증환자로 분류돼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19명은 이미 퇴원했다.

한편 우한 이외 다른 중국 도시에서 의심 환자가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남부 선전과 동부 상하이에서 각각 2명, 1명의 우한 폐렴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설날)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2의 '사스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우한이 사스와 메르스 같은 중후군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지금까지는 덜 치명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중국은 물론 인접 국가들도 긴장하고 있다. 이미 태국과 일본에서 우한을 방문했던 중국인 2명과 1명이 각각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싱가포르와 베트남, 홍콩, 대만에서도 계속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다. 춘제에는 중국에서 고향으로 가거나 해외 관광을 즐기는 등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 전염병이 확산하기 쉬운 상황이 된다.

한편 영국 런던 임페리얼칼리지 연구진은 전날 "실제 감염자가 17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우한 폐렴 발생 건수가 축소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닐 퍼거슨 임페리얼칼리지리던던 과학자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여러 측면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월 20억명·매일 10억시간 시청... 세상을 바꾼

유튜브 경제학

연매출 최대 250억 달러 추정
‘넷플릭스’·‘갭’과 어깨 나란히
5000만명이 콘텐츠 올리고
100개 국가서 80개 언어로 검색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은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인수·합병(M&A)을 성사시켰는데 그중 가장 큰 성공작으로 첫 손에 꼽히는 것이 바로 유튜브다.
구글은 2006년 16억 달러(약 1조8600억 원)에 유튜브를 인수했다. 당시만 해도 구글이 장래가 불투명했던 동영상 사이트에 거액을 투자한 것을 비웃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유튜브는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구글은 유튜브 실적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유튜브 연 매출이 160억~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유튜브가 유료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의 ‘대명

치열해지는 경쟁

히트 콘텐츠 나오면
너도나도 같은 영상
“10년 후 90% 사라져”

유튜브가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동영상 플랫폼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바로 ‘유튜버’가 있다.
일본 니혼게이지신문은 최근 무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다른 유료 스트리밍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의 존재라고 분석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수익을 올린 10명의 유튜버가 번 돈은 총 1억 6200만 달러(약 1878억 원)에 달한다. 1위 유튜버는 2600만 달러 수입을 올린 여덟 살짜리 라이언 카지다. 이 어린이 유튜버는 불과 세 살 때 장난감을 개봉하는 동영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다. 장난감 소개

아이디어로 승부... 모방도 쉬워
시장 매력에 연예인도 뛰어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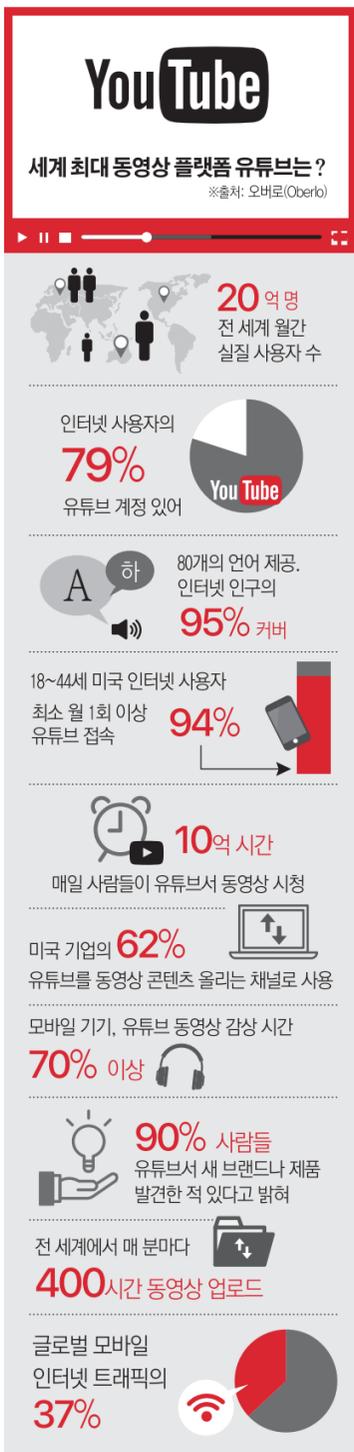


미국 베벌리힐스에서 열린 '2019년 유튜브 스트리밍 어워즈'에서 한 아티스트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베벌리힐스/AP뉴시스

이외에도 과학실험 등 교육용 콘텐츠로도 영역을 넓혔으며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훌루와 계약하는 등 기업 못지않은 활약을 보였다.

이렇다 보니 전 세계 어린이들의 희망직업 상위권에 유튜브가 올라와 있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유튜브 매력이 커질수록 경쟁도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의 여명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톱속 튀는 동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들은 분명 시장 확대의 원동력이었



다. 그러나 비슷한 동영상이 잇따라 나오면서 폭발적인 히트 동영상이 줄어드는 등 유튜버들은 위기를 맞이했다.

일본 유튜버 매니지먼트 업체 넥스트의 오카노 다케시 사장은 “100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인기 유튜버라도 10년 후에는 90%가 사라질 것”이라며 “예산과 인력이 한정돼 아이디어로 승부를 보는 유튜브 동영상은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830만 구독자로 일본 최정상 유튜버로 꼽히는 ‘하지메사초’도 경쟁 격화에 고민이 깊어졌다. 조회수가 3회에 불과한 자기 소개 동영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젤리를 혼자 먹습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1억20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톱속 튀는 아이디어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비슷한 콘텐츠가 범람하면서 그의 유튜브 채널도 조회수가 1000만 회 이상을 넘어가는 동영상은 대부분 2~3년 전의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일본 ‘국민아이돌’ 아라시가 유튜브에 진출, 구독자를 순식간에 250만 명 확보하는 등 유명 연예인이라는 강적들의 등장에 기존 유튜버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닷케이는 진단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방송계의 프로마저 진출할 정도로 유튜브 플랫폼 매력이 매우 크다는 의미도 된다. 일본 유튜버 관련 시장은 2015년 33억 엔(약 348억 원)에서 2017년 219억 엔으로 급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579억 엔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사인 넷플릭스나 유명 의류 브랜드 갭(GAP)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의미다. NYT는 S&P500 기업 중 절반은 유튜브보다 매출이 적을 것으로 추산했다.

수치로 보는 유튜브 플랫폼 권역은 어마어마하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브의 월간 실질 사용자 수는 20억 명에 달했다. 유튜브는 페이스북에 이은 세계 2위 소셜네트워크 킥서비스(SNS)라고 스태티스타는 규정했다.

유튜브는 세계 2위 인터넷 검색엔진으로 꼽히고 있다. 1위는 바로 구글이다. 구글과 유튜브가 검색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셈이다.

사용자들은 100개 이상 국가에서 80개의 언어로 유튜브를 검색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95%를 커버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언어는 43개다. 기업 마케터 입장에서 타깃 고객을 전 세계로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열려 있다.

어린이에서 젊은 층,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유튜브를 사용한다는 것도 또

글로벌 유명 SNS 월간 사용자 수

(단위 : 100만 명, 2019년 10월 기준)



다른 강점이다. 광고 에이전시 위아플린트(Weareflint)의 2018년 조사에서 18~44세의 미국 인터넷 사용자 중 최소 90%가 유튜브에 접속했다. 또 75세 이상 노인 인터넷 사용자의 51%가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고 있다.

매일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10억 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보며 수십 억 건의 조회수를 생성한다. 아울러 유튜브 동영상 감상 시간의 70% 이상이 모바일 기기로부터 온다.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트래픽의

37%를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 가장 각광받는 동영상 플랫폼인 것이다.

더욱 큰 의의는 유튜브가 단순히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유튜버’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으며 TV와 인터넷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점이다.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한 ‘파괴적 혁신’의 선봉장이 바로 유튜브인 것이다.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린 크리에이터는 5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튜브는 2018년 초 공식 자료에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창출한 채널 수가 전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지난 5년간 저작권 확인 시스템인 콘텐츠 ID를 통해 20억 달러 이상을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했다.

한편 유튜브는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이 맹활약을 펼치는 플랫폼이자 시험 무대다. 예를 들어 유튜브는 지난해 1분기 830만 개의 유해하거나 논란이 있는 동영상을 삭제했는데 이 가운데 76%를 AI가 실행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참다한 홍삼
CHAMDAHAN RED GINSENG

설맞이

특별할인전

2020.1.2~2.3

5% 할인

15만원 이상 구매시

10% 할인

30만원 이상 구매시

15% 할인

60만원 이상 구매시

20% 할인

200만원 이상 구매시

5+1 추가증정 & 10% 추가할인

홍삼정 마일드스틱	클래식	홍삼절편 (120g)	다시, 남자	다시, 여자	홍삼대환
55,000원 49,500원	55,000원 49,500원	55,000원 49,500원	69,000원 62,100원	89,000원 80,100원	150,000원 135,000원

•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5+1제품은 금액별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복수구매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고객상담전화 1661-0308 더 많은 혜택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chamdahan.com

갭투자자 '전세대출 회수' 2주 밀리면 '신불자' 된다

오늘부터 9억 집 있는 차주 규제 제때 값어도 3년간 관련 대출 차단

오늘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 대출금을 제때 갚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상속을 통한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는 예외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이후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차주들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내용			
주택보유수(부부합산)	연소득(부부합산)	중·저소득자(1억 원 이하)	고소득자(1억 원 초과)
무주택		○	○
1주택	비고가 주택(시가 9억 원 이하)	○	○
	고가 주택(시가 9억 원 초과)	○	○
다주택		○	○

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이때 2주는 법정 개념이 아닌, 회수 통보 기간(2~3일)과 상환을 기다려주는 기간(약 10일)을 더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대출은 3개월간 상환이 밀리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만, 이번 경우는 규제 위반에 해당하므로 약 2주 안에 갚지 않으면 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카드 발급을 포함한 신용거래가 막히는 등 경제생활에 광범위하게 제약이 걸린다.

규제를 위반한 갭투자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출 회수가 결정된 차주는 그 즉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국 규제 위반이 확인되는 순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안 되고, 이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2단계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이익을 피하려면 새로 살 집의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매 계약까지는 전세 대출을 유지해도 되지만,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하는 순간 시스템에서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지연 기자 sjy@

“고객은 우리 존립의 근간 ‘Act 2020’ 각오 새겨야”

〈신뢰·혁신·효율〉

손태승 우리은행장

전략회의서 KPI 제도정착 당부

손태승(사진) 우리은행장이 “고객은 우리의 존립 근간으로, 올해는 고객 신뢰의 회복을 넘어 더욱 탄탄하고 두텁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철저히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손실로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등 우리은행을 둘러싼 각종 어려움을 전방위적인 혁신으로 돌파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17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손태승을 비롯한 임직원 9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경영전략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손태승은 “21년 만에 전면개편된 고객 중심의 핵심성과 지표(KPI) 제도를 통해 영업문화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새로운 KPI 제도의 정착을 당부했다. 우리은행은 올해부터 영업성과 평가에서 비이재미의 지표를 아예 없애고 고객 관련 지표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등 KPI를 전면 개편했다.

손태승은 모든 임직원에게 실천하는 2020년을 뜻하는 ‘액트(Act) 2020’의 각오도 당부했다. 그는 “올해 경영 목표인 ‘신뢰·혁신·효율’이 좋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하려는 적극적인 ‘실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보험료 “흡연자, 보험료 차등적용 필요”

“美·英, 비흡연자의 2배 비용 지불”

고객의 흡연 여부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흡연자가 비흡연자 대비 2배가량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19일 ‘흡연 행태 변화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라는 보고서에서 보험회사가 관리해야 하는 전체적인 흡연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여성의 흡연율과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흡연율은 2010년 27.5%에서 2018년 22.4%로 꾸준히 하락했으나 여성 흡연율은 2015년 5.5%에서 반등하기 시작해 2018년 7.5%까지 올랐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역시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 유발 의심물질이 발견됐다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비흡연자의 위험도를 100%라고 했을

때 흡연자의 사망 위험도는 164%, 질병입원 위험도 154%, 질병수술 위험도는 141%로, 흡연자의 사망과 질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며 변화하는 흡연 행태와 리스크에 주목해 정교한 흡연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과 영국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상이한 사망률과 보험요율표를 적용하고 있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2배가량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자에게 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지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지연 기자 sjy@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자금난 中企 지원할 것”



고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제히토류금속은 열교환설비 등의 소재부품인 카본 튜브, 스테인리스 튜브 등을 제조하며 NH농협은행 단독 협약기관인 이노비즈협회의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및 히토류금속 등에 대한 특허 등을 보유한 제조업중 중소기업이다.

이대훈 은행장은 “현장에서 청취한 기업의 고충 사항을 반영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객신산 기자 jinsan@

NH농협은행은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장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CEO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활발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17일에는 이대훈(사진) 농협은행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전북산업단지에서 위치한 국제히토류금속을 방문해 농협은행을 주거래하며 동반 성장한 것에 감사를 표하

www.douzone.com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을 제공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기업용 ERP

- 회계관리
- 인사·급여관리
- 영업관리
- 무역관리
- 구매·재재관리
- 생산관리
- 외주관리
- 서비스관리
- 경영정보관리
- 더존 iCUBE
- 더존 iCUBE Cloud Edition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 자산관리
-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 인사·급여관리
-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 구매·재재관리
- 생산관리
- 더존 iCUBE G20
-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 요즘 해외주식 지류가 인기라는데,
 해외주식 투자는
 어디서 해야 하나? ”



글로벌 투자 · 자산관리의 名家

하나금융투자에서 시작하자!



온라인 5개국, 오프라인 23개국 * 기준일 2019.7.5
28개국 거래 가능 서비스



해외주식 전문가의
24시간 상담 서비스 02)3771-3771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 가능 ※해외주식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해외주식은 현지 사정에 따라 결제일이 지연될 수 있음 ※해외주식 매매수수료는 온라인기준 미국 0.25%(최소수수료 USD 5), 중국 0.3%(최소수수료 없음), 오프라인기준 미국 0.5%(최소수수료 USD 20), 중국 0.5%(최소수수료 CNH 50), 국가별, 주문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9-02690호(2019.07.05~2020.07.04) CC브랜드190705-64 m.hanaw.com | 1588-3111

 **하나금융투자**

“삼성, 이번 주 임원 인사”...퇴임 대상자 통보

삼성이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 2020년 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핵심 경영진이 재판에 받는 상황에서 그동안 임원인사를 미뤄왔다. 그러나 더는 인사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주에 사장단부터 임원인사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들은 16일부터 퇴임 대상 임원에게 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사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20일부터 정기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통상적으로 12월에 사장단과 후속 임원인사를 발표하고 새 경영진으로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는 여러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임원인사를 미룬 채 글로벌

연도	인사 일자	인사 대상
2015	12월 1일(사장단)	→ 사장 6명 승진
	9월(임원)	→ 부사장 29명 등 총 294명 승진
2016	없음	→ 국정농단 사태로 총수 부재(2017년 5월 사업부문별 인사)
	11월 2일(사장단)	→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장 7명 승진
2017	16일(임원)	→ 부사장 27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5명 등 총 221명 승진
	12월 6일	→ 부회장 1명, 사장 1명 승진
2018	12월 6일	→ 부사장 13명 등 총 158명 승진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더는 못 늦춘다’ 판단 준법감시위 구성·이사회 의장 선임 등 준비해야 김기남·김현석·고동진 ‘3인 대표체제’ 유지 전망

별 전략회의가 열렸다. 이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과 더불어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구속됐다.

그동안 삼성 안팎에서는 인사를 둘러싸

고 추측만 무성했다. 새해 경영업무가 시작됐지만 인사가 지연되면서 조직 내 피로도가 가중됐다.

어수선한 내부를 정비하기 위해선 더는 인사를 미루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삼성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준법감시위원회 필수로 한 조직문화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하고, 3월 정기주주총회도 앞두고 있다. 또 연초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인사 단행이 필요하다. 삼성은 최근 중국 산시성 시안 반도체 공장에 80억 달러(약 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2025년까지 ‘QD디스플레이’ 생산시설 구축 및 R&D에 총 13조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굵직한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른 후속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삼성은 임원인사 이후 변화와 쇄신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할 전망이다. 이상훈 의장 구속으로 삼성전자 이사회는 사실상 의장 공백기에 접어들었다. 의장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요 계열사들의 이사회도 열려야 한다.

이번 인사에서도 삼성은 ‘성과주의’와

‘안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안에서는 주요 경영진의 재판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밖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한·일 수출규제 갈등 등 만만치 않은 대외 이슈가 널려 있다.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면서 의사결정 구조 등에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DS부문장), 김현석 사장(CE부문장), 고동진 사장(IM부문장) 등 3인 대표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에서는 세대교체 차원의 일부 경영진 교체설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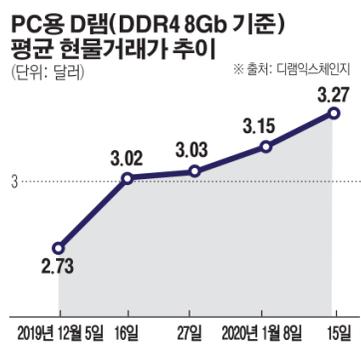
준법 강화 차원의 조직 신설·확대, 젊은 임원 대거 발탁 등에 대한 예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인사는 타이밍이 핵심”이라며 “삼성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더는 인사를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D램 값 반등에도 웃지 못하는 반도체 업계

지난달부터 현물가가 3달러 돌파 정작 거래가는 2달러대 정체 ‘중국산 D램’ 초과 공급 우려 LCD 패널 값도 中이 주도권



지난해 줄곧 하락했던 D램, LCD(액정 표시장치) 패널 가격이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가격회복력이 대내외 부정적 변수로 인해 초조함과 비교했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실적 개선을 위해 매출 다변화, 차세대 제품 경쟁력 강화 등에 주력한다.

19일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에 주로 사용되는 D램(DDR4 8Gb 기준)의 평균 현물거래가격은 15일 기준 3.27달러다. 작년 12월 5일 2.73달러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D램과 마찬가지로 줄곧 내림세였던 LCD 가격 또한 최근 상승하기 시작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0·55·65인치 대형 LCD 패널 가격은 각각 85·101·162달러를 기록했다. 전월보다 1달러씩 상승한 수치다. 2018년

9월 이후 15개월 만에 오른 것이다.

D램 현물가, LCD 가격이 올랐음에도 업계는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업체들은 D램 거래를 현물가가 아닌 고정거래가로 하는데 아직 이 가격 변동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통상 현물가가 상승은 곧바로 고정거래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고정거래가는 반도체 수요 외에도 업체들의 재고 상황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D램 현물가는 작년 12월 중순 3달러를 돌파했다. 그럼에도 같은 달 D램 고정거래가는 2.81달러에 머물렀다.

부정적 변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또한 반도체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후 중국은 미국 반도체를 대량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제기되

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량에 타격을 준다.

여기에 중국 CXMT(장신메모리테크놀로지)는 올해 월 페이퍼 4만 장 규모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등 D램 초과공급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LCD 가격은 중국 업체들의 정책에 따라 하락할 여지가 있다.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LCD TV 패널 시장 점유율은 사상 처음으로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현재 LCD 패널 시장은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중국 업체들이 상황에 따라 공급 물량을 늘리기 시작하면 패널 가격은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SK E&S, 신안 해상풍력발전 시동

1분기 80억 출자 법인 설립 사업 분석·인허가 작업 돌입

SK E&S가 친환경 해상풍력 사업에 시동을 건다. 해상풍력 자원이 풍부한 전남 신안 지역에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개발해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17일 SK E&S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 1분기에 80억 원을 출자해 전남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전남해상풍력(가칭)을 설립할 계획이다. SK E&S는 전남 해상풍력에 인허가권 등 사업 개발 관련 자산을 이관할 예정이다.

전남 해상풍력발전 사업 1단계에 돌입한 SK E&S는 이번 SPC 설립을 시작으로 사업성 분석, 인허가 작업 등 사업 개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SK E&S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설비 용량은 100MW 규모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

라며 “사업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사업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 2019’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매년 13%씩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8년 기준 글로벌 해상풍력 설비 용량은 23GW로 아직 초기 시장이지만, 2040년까지 누적 투자액이 1조 달러(약 115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 역시 성장을 위한 예열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도는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사업비 4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신안에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성장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시장에 뛰어든 SK E&S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기업으로 한층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50주년 다보스 ‘신자본주의’ 모색

21일부터 ‘결속력 있고 지속가능한 세계’ 건설 논의

올해 50주년을 맞은 다보스 포럼에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논의한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1971년 창립한 국제포럼으로,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참석해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대안을 모색한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1~24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다보스 포럼의 핵심 의제는 ‘결속력 있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의제 설립 배경에 대해 “최근 글로벌 거버넌스의 바탕을 이뤘던 국제 연대가 약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초국가적 기구들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전 세계가 직면한 다차원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고 및 행동 방식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핵심 의제를 바탕으로 포럼에서 논의될 주요 어젠다는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 △지속가능하고 포괄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 △인류 번영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인구, 사회, 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비 등이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개념도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존 자본주의는 주주와 기업 이익을 우선시해왔다”며 “이해관계자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현대에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는 신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2020년 다보스 성명’을 기반으로 6대 핵심 활동 영역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 협력과 플랫폼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6대 핵심 활동 영역은 △생태학 △경제 △기술 △사회 △지정학 △산업 등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다보스 포럼은 기존 자본주의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정호영(오른쪽에서 네 번째) LG디스플레이 사장과 주요 협력사 CEO들이 17일 ‘2020년 동반성장 새해모임’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80개 협력사 최고경영자 ‘동반 성장’ 모임

LG디스플레이는 17일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80여 개 핵심 부품, 장비 협력사 최고경영자(CEO)를 경기 파주 사업장으로 초청해 ‘2020년 동반성장 새해 모임’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사업전략을 직접 설명하는 한

편,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및 구매 중점과제를 공유했다.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사업전략을 설명하며 “우리의 체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가 같이 단계적으로 벽돌을 쌓아 간다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큰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불황에 非철강 사업 키우는 철강 CEO

사업 다각화 한목소리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에너지·소재 인수합병 검토”
배터리 관련 매출 17조 목표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

“기존 포트폴리오 벗어날 것”
수소전지·건축용 재료 관심



포스코인터 미얀마 가스전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



현대제철 수소공장과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

지난해부터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 상승, 수익성 악화, 건설·자동차 등 수요산업 부진 등 악재 지뢰밭에 허덕이며 장기 불황을 견뎌내고 있는 철강업계가 올 한 해 도 어려움을 겪으며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철강업체 수장들은 과거 집착해왔던 철강 부문에서 조금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비(非)철강부문에 지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미래 신사업으로 2차전지 소재사업의 경우 양·음극재 생산능력 확충 및 마케팅 역량을 제고하고, 향후 성장동력이 될 유망 아이템을 조속히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열린 ‘2020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 “비철강 사업의 에너지·소재 부문에

서 인수합병(M&A)을 검토 중”이라며 또 한번 비철강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취임과 동시에 미래 신성장동력 마련을 강조해 온 최정우 회장은 2030년까지 2차전지 소재인 양·음극재사업의 세계 시장점유율 20%, 매출 17조 원 규모로 키워 그룹 성장을 견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에 포스코는 올해 3대 키워드 중 하나로 ‘진화’와 ‘집중’을 내세워 2차전지 소재사업은 물론 LNG 밸류체인(Value Chain), 식량 사업 등의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도 올해를 혁신과 변화의 원년으로 삼고 “기존의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핵심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취임 2년 차를 맞은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최근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강관 사업부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선언하며, 철강 부문 중에서 비수익 부문을 과감하게 떼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관사업부는 2015년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를 인수·합병하면서 흡수한 부문으로 생산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설비 가동률 역시 60%대로 80~100%를 가동하는 타 사업부보다 낮다.

현대제철은 철강 부문의 수익성 제고와 함께 새로운 분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의 수소전기차 사업에 맞춰 수소연료전지용 금속분리판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물용, 선박용, 발전기용 등에 적합한 금속분리판 연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창립 65주년을 맞은 동국제강역시 장세욱 부회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장 부회장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특수강사업팀을 신설하고 연구개발(R&D)에 집중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 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신강종을 개발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도 사업다각화를 위해 비철강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가장 먼저 새사업으로 알루미늄을 택했다.

세아베스틸은 고부가 알루미늄 소재업체 ‘알코닉코리아’ 인수를 추진 중이며, 올 1분기 안에 760억 원을 들여 최종 인수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은 알코닉코리아 인수로 사업영역을 방산, 항공 등 알루미늄 소재까지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철강업계 CEO들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에도 관심을 보이며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유일의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포스코는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전 생산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등대공장은 어두운 밤하늘에 등대가 불을 비추는 길을 안내하듯, 사물인터넷(IoT)·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극 도입해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끌고 있는 공장을 의미한다.

현대제철은 기존 스마트팩토리에서 더 나아가 제조 부문을 비롯해 시스템 등 전 부문에 걸친 매니지먼트 구현이 가능하며, 동국제강 역시 전사적으로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한·아세안 FTA 속도...항공 ‘日 대체시장’ 기대

필리핀·인니와 연내 무역협정 방한 여행객·화물 수요 클 듯

정부가 아세안 국가들과 FTA 체결에 속도를 내면서 항공 산업도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필리핀과 상반기 내에 FTA를 타결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와는 올해 안으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발효할 전망이다.

두 나라와 협정을 맺으면 아세안 5대 교역국인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필리핀 가운데 4곳과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마무리하게 된다. 베트남, 싱가포르와는 이미 FTA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일본 노선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동남아가 대체 노선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국내 항공 산업은 앞서 중국과의 FTA

를 시작으로 큰 성장세를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다음 해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은 807만 명으로 전년 대비 34.8% 증가했다.

항공화물 부문에서도 2016년 대중국 수출·수입 물동량이 전년보다 각각 6.6%, 12.3%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내 항공 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덕분에 2016년 방한한 전체 외래객은 1724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가 6억 명가량으로 중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칠지 모르는 한류의 인기를 타고 인바운드(방한 외국인 승객)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노선을 취향할 때 한국인이 방문할 관광지뿐만 아니라 방한 여행객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취향해 인바운드 수요도 끌어낼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승 기자 kissong@

세탁기 멈추면 건조기가 알아서 코스 설정

LG ‘스마트 페어링’ 신제품 출시

LG전자는 한층 더 진화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럼세탁기와 건조기를 내달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LG전자는 1998년 세계 최초로 세탁기에 상용화한 DD(Direct Drive, 다이렉트 드라이브)모터와 업계 최고 수준의 인버터 기술력을 통해 차별된 장점들을 계승 발전시켜온 가운데 이번에는 인공지능 세탁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인공지능 DD세탁기는 다양한 세탁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의류의 양

과 재질을 판단해 최적의 세탁 조건에서 인공지능 세탁을 진행한다.

LG 씽큐(LG ThinQ) 앱에 연동되는 건조기 신제품은 스마트 페어링 기술을 이용해 세탁기로부터 세탁 코스에 대한 정보를 받아 건조 코스를 알아서 설정할 수 있다. LG 씽큐 앱은 와이파이(Wi-Fi)를 이용하는 가전관리 애플리케이션이다.

LG전자는 내달 선보일 드럼세탁기와 건조기의 설치부터 사용, 관리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상태로 제품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GMT 1547.1135

애니 캐릭터, 게임 속으로... 어린이·여성 취향 저격



'신비아파트 고스트 시그널' 게임.

새해를 맞아 국내 게임업계에서 IP를 활용한 게임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과 소설, 인기스타 등을 활용한 게임 출시가 이어지면서 저연령층 유저들을 잡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IP를 활용해 게임을 개발하면서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에 한정돼 있던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게임에서도 긍정적 성과가 이어지며 다양하게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애니메이션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신비아파트' IP를 활용한 '신비아파트 고스트 시그널'은 지난달 출시와 함께 게임업계에서 주목받는 신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게임은 증강현실 서비스를 접목해 가상의 공간에서 게임을 직접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한 것이 강점이다. 이용자는 직접 주인공 '하리'가 돼 다양한 인물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신비아파트 IP 활용 '고스트 시그널' AR서비스 접목
로맨스 판타지 장르 '워너비 챌린지' 여성 유저 공략
연습생 선발부터 데뷔까지 '아이돌 프로듀서'도 인기

선택지를 고르고, 직접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모바일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신비아파트 고스트 시그널은 애니를 즐기는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들을 주타깃으로 한다. 원작 세계관을 확장시켜 다양한 엔딩과 캐릭터 캐미, 신비아파트처럼 등장하는 귀신들을 활용한 미니게임, 인물 코디(코스튬)와 같은 다양한 요소가 숨어 있어 기존 신비아파트 팬들이나 어린이들과 10·20대 여성의 취향을 저격한다.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신작 게임 '워너비 챌린지'는 오렌지 판타지물을 즐기는 여성 독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한다. 이 게임은 가

상의 SNS '워너비'에서 스타가 되길 꿈꾸는 여주인공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4인의 도깨비 캐릭터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다. 특히 주어진 스토리대로 이어지는 선형 구조로 각종 퀘스트와 대화 선택 등을 통해 호감도를 올려 도깨비와 만남을 가진다는 내용을 담았다. 플레이가 쉬운 편이고 이용자는 일러스트와 음악을 감상하며 게임 스토리를 감상하고 즐길 수 있다.

이용자가 직접 프로듀서가 돼 아이들을 키우는 게임도 인기다. '아이돌 프로듀서: 아이돌 키우기'는 신생 아이돌 기획사의 프로듀서가 되어 기획사를 운영하고 아이

들을 프로듀싱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연습생 선발 과정부터 보컬, 댄스, 랩 등의 포지션 결정, 트레이닝, 프로듀싱을 거쳐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키는 전 과정을 유저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 데뷔 이후 행사와 연말 시상식 등 다양한 스케줄을 수행하며 돈을 벌며 기획사를 성장시키는 시뮬레이션도 담았다. 유저들의 취향대로 기획사의 인테리어도 할 수 있어 아이돌 시장에 관심이 많은 이용자들에게 높은 대리만족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시뮬레이션 게임은 RPG장르에 주를 이루고 있는 국내 게임시장에 장르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다양한 영상·웹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1020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모바일 시뮬레이션 게임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중기부, 올해 메이커 스페이스 64곳 추가 조성

3D프린터 등 다양한 장비 갖춰
창작·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내달 28일까지 운영기관 모집

정부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64개소를 올해 추가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계획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스페이스를 운영할 주관 기관을 다음 달 28일까지 모집한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춘 창작 및 창업지원 공간이다. 2018년 65개소

를 시작으로 현재 총 128개소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에 조성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일반형 공간 60개소와 전문창작과 창업연계 기능의 전문형 공간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문형은 시제품 제작 등 전문 창작활동과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 창업·사업화 지원 역할을 한다. 신청 자격은 메이커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교육·창작활동 지원 등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민간기관 및 단체로, 일반형은 100㎡ 내외, 전문형은 1000㎡ 내외 전용공간과 각 2명, 7명 이상의 상시 운영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선정된 기관 및 단체에는 총 사업비의 70%(일반형의 경우 80%) 이내에서 공간 인테리어, 장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 전문형은 15억 원, 일반형은 1600억 원까지 가능하다.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올해는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스페이스의 기능을 보다 전문화해 자생력을 키울 것"이라며 "지역 메이커 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K-Startup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118상담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아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 10주년... 458만건 상담 성과

인터넷 해킹 피해문제 해결
4월부터 숫자도메인 도입
민원인 접근 편의성 강화

해킹이나 바이러스, 불법 스팸, 개인정보 침해 등의 인터넷 해킹 피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118상담센터'가 4월부터 숫자도메인을 도입하고 민원인 접근 편의성을 강화한다.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킹·바이러스 상담지원센터로 출발한 '118상담센터'가 10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118상담은 대국민 일선, 접점에서 국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을 상담·접수하는 일을 맡고 있다.

강해영 118상담팀장은 "118상담센터는 인터넷 고충 상담을 하고 있고, 365일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상담과 신고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의 최접점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공기와 같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2000년 3월 대테러에 대한 국민 보호를 위해 118이라는 번호가 처음 사용됐다. 이후 2010년 1336·118을 통합해 118상담센터를 개소했다. 현재 개인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인지, 해킹을 당한 것인지 알수 없을 경우 원격으로 악성코드를 점검하고 제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10년간 118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총 457만7000건에 달한다. 특히 2013·2014년에는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인해 접수가 급증했다. 스팸 관련 접수는 2015년까지 상승세였지만 2016년부터는 하향세로 접어들기도 했다.

118상담센터는 4월 숫자도메인을 도입해 민원인들의 접근 편의성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또 지역 인재를 상담인력으로 채용하고, 상담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지역과 상생에 나선다. 특히 데이터3법, 개보법 등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스텀디 교육을 진행하고 국민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디지털 전환으로 고객경험 혁신"

새해 첫 임원 워크숍
LG헬로비전과 합동진행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17일 올해 첫 임원 워크숍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디지털 전환으로 고객 경험에 혁신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하 부회장은 17일 서울 상암동 마곡사옥 지하 프런티어홀에서 LG헬로비전 임원 포함 전사 담당, 임원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임원 워크숍을 진행,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객 경험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올해 워크숍은 새롭게 LG 가족이 된 LG헬로비전 임원들도 함께 해 더욱 뜻깊다"며 "올해는 통신과 미디어 플랫폼 혁신을 통한 선도가 중요하다. '일등DNA'를 가진 LG헬로비전 구성원들이 이러한 경쟁에서 주인공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양대 플랫폼 결합을 통한 종합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의 도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 부회장은 "2020년을 고객 경험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각 사업영역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기 바란다"며 참석한 담당, 임원들이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들더라도 처음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라며 "추진 과제의 목표 수준을 명

확하게 규정하고 전 임직원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재를 바르게 이해해 이를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을 철저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고객 경험 혁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LG유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며 디지털 전환은 결국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김홍익 LG헬로비전 기술담당 상무는 "LG유플러스 임원들과 처음 함께 한 자리였지만 LG의 한가족이라는 동질감을 느꼈고, 그룹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양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점들을 서로 벤치마킹해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이통3사, 설연휴 '통신 네트워크 특별대책' 수립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통신 네트워크 특별대책에 나섰다.

19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인파가 몰리는 전국 주요 지역 220여 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KT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품질을 사전 점검하고, 트래픽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네트워크 품질 최적화 작업을 완료했다. 인파가 운집하는 108곳에는 트래픽 과부하에 대비해 트래픽 처리용량 조정과 함께 총 140여 식의 기지국 증설 작업도 끝마쳤다.

SK텔레콤은 23일부터 27일까지 5500

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고속도로·국도, 공원묘지, 공항, 터미널 등 트래픽 급증이 예상되는 전국 750여 곳에 기지국 용량을 추가로 증설하고 품질 최적화를 마쳤다.

LG유플러스도 설 연휴를 맞아 이동통신 통화량 및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네트워크 최적화,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등 '연휴 특별 소통 대책'을 수립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 사옥에 종합상황실을 개소,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에 돌입한다.

이재훈 기자 yes@

‘공격적 면세사업’ 현대백, 인천공항 T1 입찰전 ‘눈독’

지난해 두타면 인수, 1분기 시내면세점 2호점 개장 앞뒤
중단체 관광객 늘어 적자폭 축소... ‘라인업 강화’ 쟁결음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 공고가 수면 위에 올라오자 현대백화점면세점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18년 면세사업을 시작한 이래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지만, 적자 폭은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아울러 올해 1분기에는 동대문에 시내면세점 2호점 개장을 앞둔 만큼 업계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면세사업의 구색을 갖추고 시장에 안착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월 입찰 계약이 완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권 8개 구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공식적으로 입찰 참여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사업 확장세에 나선 만큼 이번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올해 1분기 중 두산이 사업을 접은 두타면세점 자리에 시내면세점 2호점 개장을 앞두고 있다. 1호점인 무역센터점과 달리 2호점은 두산 면세사업 부문 중 부동산 및 유형자산 일부를 인수하는 만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오픈 초기에 드는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면세사업 첫해



기록한 수백억 영업손실을 지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영업손실은 2018년 4분기 256억 원, 2019년 1분기 236억 원, 2분기 194억 원, 3분기 171억 원으로 적자 폭이 줄고 있는 추세다. 4분기에는 영업손실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 전

망이 나온다.

아울러 중국 단체 관광이 물꼬는 트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사드 보복’ 이후 중국 당국이 한국행 단체관광을 제재하면서 중국 단체 관광이 끊기자 면세업계 역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인 인센

티브 관광이 확대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이 ‘태국+한국 4박 5일짜리 단체 관광’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박은경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명품 브랜드 입점이 이어지며 점유율 확대도 4분기 매출이 3분기보다 10% 증가, 영업손실도 151억 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며 “여기에 초기 마케팅 비용이 강남 점포에 비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동대문점 추가 오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는 면세업 호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대백화점면세점의 면세사업의 본격적인 이익 기여는 2021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선 기자 only@



홈플러스가 준비한 이색 설 선물 홈플러스는 설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이색 설 선물세트를 제안한다고 19일 밝혔다. 오직 홈플러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단독상품을 비롯해 새로운 패키지와 상품 구성으로 다양한 이색 선물세트를 기획했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이커머스, 설날에도 ‘당일 배송’합니다

G마켓 롯데슈퍼 25일 운영 ‘설빅세일’ 통해 매일 할인쿠폰

“설 연휴 기간에도 배송합니다.”

이커머스 업계가 명절 연휴에도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수를 위한 상차림이나 선물 등을 급히 구매하려는 고객을 잡기 위한 시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은 마트, 슈퍼 상품을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는 ‘당일 배송관’을 운영하고 있다. ‘당일배송관’은 주소지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인근의 마트에서 상품을 당일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대상은 G마켓에서는 홈플러스와 롯데슈퍼, GS프레시에 입점한 상품이며, 옥션은 홈플러스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롯데마트는 설날(25일)에도 당일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홈플러스와 GS프레시는 설 당일(25일)만 제외하고 연휴 기간 운영한다.

설 명절 혜택도 풍성하다. G마켓 당일 배송관의 홈플러스와 롯데슈퍼, GS프레시는 20일까지 ‘설빅세일’을 통해 최대 5만 원, 1만 원씩 할인되는 쿠폰 2종을 매일 1장씩 제공하며, 멤버십제 스마



G마켓 당일배송관은 20일까지 ‘설빅세일’을 통해 홈플러스·롯데슈퍼·GS프레시에서 최대 5만 원·1만 원씩 할인되는 쿠폰 2종을 매일 1장씩 제공한다. G마켓 홈페이지 캡처

일클럽 회원은 20% 할인쿠폰 및 15% 할인쿠폰을 매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1번가 역시 홈플러스와 GS프레시의 마트 상품을 당일 배송받을 수 있는 ‘오늘장보기’ 서비스를 설(25일)을 제외한 명절 직전과 명절 연휴 기간 운영한다.

SSG닷컴은 1만2000여 종의 설 선물 세트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상품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용 상품까지 추가해 판매 상품 수를 전년 약 9500종 대비 30% 가까이 늘렸다. 이들 상품은 연휴 기간 설 당일인 25일과 다음 날인 26일을 제외하고는 ‘새벽배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쓱배송’ 서비스는 설 당일만 이용할 수 없다.

쿠팡은 설 당일을 포함해 연휴 기간 내내 ‘로켓배송’을 이어간다. 이 회사는 지난 설 명절부터 365일 로켓배송 서비

스를 갖췄다. 또한 신선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도 운영해 지정 전까지 주문한 고객은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신선식품 설 선물세트를 받아볼 수 있다.

쿠팡은 설을 앞두고 설 차례상 준비부터 선물까지 관련 모든 상품들을 선물관, 준비관, 여행관, 브랜드관 등 카테고리별로 구분한 ‘2020설 테마관’도 운영한다. 유행어 쿠팡 시니어 디렉터는 “신선식품을 포함한 일반 로켓배송 상품까지 필요한 상품을 오전 7시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새벽배송으로 바뀐 설 준비도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켓컬리도 명절 기간 ‘새벽배송’을 운영한다. 다만, 23일 저녁 11시 주문분에 한해 24일 오전에 받을 수 있고, 25~27일 선 뒤 28일 오전에 다시 배송받을 수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유통가, 설 선물 ‘편리미엄’ 바람

〈편리함+프리미엄〉

신세계계 간편 건강기능식품
마이세프 ‘The 만족 세트’ 등
즉석조리 가능한 밀키트 인기

설 선물도 ‘편리미엄(편리함+프리미엄)’ 시대다.

유통업계는 편리하면서도 가치 있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편리미엄’이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자 관련 설 선물세트를 선보이는 등 설 특수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편리미엄 트렌드를 접목한 ‘간편 건강식’을 최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간편 건강식’은 휴대와 섭취가 간편하면서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신세계×강개상인 홍삼정 스틱’과 ‘강개상인 꿀먹은 홍삼절편’, ‘비타민뱅크 위클리랩 비타민’ 등이다.

11번가는 설을 앞두고 21일까지 ‘격이 다른 2020 설 클래스’ 행사를 열고 ‘편리미엄’ 트렌드에 맞춰 손이 덜 가는 음식 준비를 위한 제품을 다양하게 판매한다.

워커힐은 정통 한식당 ‘온달’의 HMR 육개장 세트와 숯불갈비 전문점 ‘명월관’의 갈비탕 세트를 출시했다.

세븐일레븐은 ‘프레시지(fresheasy)’와 손잡고 소고기 버섯잡채, 기사식당돼지 불고기, 우삼겹순두부찌개 등 밀키트를 이번 설 선물세트로 내놓았다.

밀키트 전문 기업 마이세프는 설 음식 준비를 덜어주는 프리미엄 냉동 밀키트 ‘The 만족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한국야쿠르트 자체 온라인몰 ‘하이프레시’에서 선보인 설날 선물세트.

한국야쿠르트의 간편식 ‘잇츠온’ 선물세트도 편리미엄 선물세트 시장을 정조준한 제품이다. 한국야쿠르트는 자체 온라인몰 ‘하이프레시’를 통해 간편식 ‘잇츠온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떡국은 물론 불고기 등 명절에 즐기는 음식을 밀키트 형태로 구성해 별도의 재료 준비 과정 없이 바로 조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CJ제일제당, 아워홈, 오투기 등에서 판매하는 사골곰탕도 편리미엄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샘표의 ‘가마솥 방식 사골육수’는 엄선한 한우사골과 국산 소금을 넣고 전통 방식으로 끓여낸 후 농축한 제품으로 끓는 물에 제품을 넣으면 바로 사골요리를 즐길 수 있다.

편리미엄 대표 가전도 설 선물 특수가 기대된다. 전자렌지는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229% 판매가 늘어난 식기세척기 수요가 올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CU ‘초대형 스팸 도시락’ 출시

‘나홀로 명절’ 젊은층 겨냥... 일반 스팸 5배 큰 사이즈

사람 얼굴 크기만 한 초대형 스팸이 편의점에 등장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씨유)가 CJ제일제당과 함께 특수 개발한 초대형 스팸으로 만든 ‘대왕 스팸 덮밥 도시락(사진)’을 21일 출시한다. 설날을 겨냥한 명절 도시락으로 가격은 4000원이다.

대왕 스팸 덮밥 도시락에 담긴 스팸의 크기는 가로 8.5cm, 세로 17.5cm로 기존 제품 대비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한다. 넓이 기준 일반 스팸보다 약 5배 더 큰 사이즈로 도시락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밥 위에 이물처럼 깔려 있다.

이 초대형 스팸은 CJ제일제당이 1.8kg의 대용량 스팸을 CU에 공급하면 특수 절단 설비를 통해 직접 대형 크기로 가공해 조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해당 도시락은 이 외에도 스팸과 계란

지단을 밥 위에 함께 올려 스팸 특유의 짭짤한 맛과 조화를 맞췄고 단호박 샐러드와 볶음 김치도 함께 구성해 완성도를 높였다. 토마토 케첩도 동봉되어 있다.

CU의 대왕 스팸 덮밥 도시락은 역발상 명절 도시락이다. 그동안 업계에서 내놓은 명절 도시락들은 전, 잡채, 나물 등 전형적인 명절 음식으로 구성됐지만 CU는 연휴 기간 도시락을 이용하는 명절 나홀로족들이 대부분 20~30대 젊은층이라는 것에 착안해 그들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 것이다.

실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명절’ 하면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로 스팸을 꼽고 있으며 특히, 1~2인 가구 젊은층에서 스팸은



밥도둑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매출 동향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연히 나타난다. CU에 따르면, 최근 3개년 명절 기간 스팸 매출은 전년 대비 2017년 12.1%, 2018년 29.8%, 2019년 15.6%로 매년 꾸준히 자릿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중 스팸 선물세트는 설, 추석 명절 기간 매출이 연간 전체 매출의 약 6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준휘 BGF리테일 간편식품팀 MD는 “명절과 스팸이 강한 인자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설엔 스팸을 활용한 새로운 콘셉트의 명절 도시락을 기획했다”며 “최근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대왕, 빅사이즈 코드를 접목해 사 이즈를 차별화한 이색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남주현 기자 jooh@

“IPO 수익성 높아” 특례상장으로 눈 돌리는 증권사

테슬라·성장성·사업모델 특례 등 일반상장 대비 수수료 3배 많아 작년 올리패스 8.6억 지급 ‘최고’

지난해 특례트랙을 통해 상장한 기업

기업명	수수료율	활용트랙
올리패스	600bp	성장성 추천
신테크바이오	500bp	성장성 추천
리메드	400bp	테슬라 요건
플리토	450bp	사업모델 특례

지난해부터 다양한 특례상장 트랙이 활성화되면서 증권사들이 관련 실적 쟁기에 집중하고 있다. 특례상장의 경우 일반상장보다 수수료가 많게는 3배에 이르기 때문에 ‘제값 수수료’를 받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힌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총 22개다. 이 중 일반적인 기술특례상장이 아닌 △성장성 추천 △이익 미실현(테슬라) 상장 △사업모델 특례 △소부장 특례(패스트트랙) 등으로 증시에 데뷔한 기업 수는 총 10개다. 2018년 특례제도로 상장한 21

개사 중 셀리버리(성장성 추천), 카페24(테슬라)를 제외한 19개 기업이 모두 기술특례제도를 이용한 것과는 상반된다.

해당 특례트랙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최소 400~500bp 수준의 딜 수수료를 책정했다. 지난해 가장 큰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한 기업은 올리패스다. 전체 공모금액에서 600bp(6%)가량인 8억6500만 원을 주관사 몫으로 배분했고, 이 중 인수비율에 따라 공동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셋대우와 키움증권이 각각 5억3600만 원, 3억2800만 원을 가져갔다. 라파스, 신테크바이오, 브릿지바이오,

캐리소프트는 500bp로 뒤를 이었고, 플리토 450bp, 리메드, 메탈라이프 등 400bp 순으로 수수료율이 높았다.

이런 수수료율은 일반적인 기업공개(IPO) 딜보다 2~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통상 일반기업 IPO의 경우 200~300bp,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300bp 근처 수준에서 수수료가 결정된다. 공모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율은 더 줄어든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1000억 원 이상 조달한 기업은 롯데리츠(4299억 원), 한화시스템(4026억 원), 지누스(2417억 원)인데, 인수수수료율은 각각 150bp, 80bp, 120bp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선 상장 주관기업 기간과 업무량에 비해 수수료가 적다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IPO 수수료 수익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특례 트랙 활용을 고심 중이다. 지난해부터 기술특례상장을 제외한 특례트랙 상장이 이전보다 활

발하게 이뤄진 이유다.

증권사 IPO 부서 관계자는 “일반기업 IPO의 경우 수수료율이 낮으므로 특례트랙 기회를 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도 “기존의 기술성 평가 특례상장에 더해진 테슬라 요건, 성장성 특례상장, 사업모델 특례 등 다양해진 상장 특례를 활용한 기업들의 신규 상장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소부장 특례트랙 기업들이 먼저 질주를 시작했다. 기술평가 특례와는 다르게 전문평가기관 한 곳으로부터 A등급만 받으면 기술평가 통과가 가능하다. 최근 서남, 서울바이오시스, 레몬 등이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상장 채비를 하고 있다. 이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서남의 경우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450bp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비슷한 시기

상장을 진행하는 제이앤티씨(280bp), 엔에프씨(250bp)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특례상장을 진행한다 해도, 성공적인 공모가 산정을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상장한 △성장성 추천 △이익 미실현(테슬라) 상장 △사업모델 특례 △소부장 특례(패스트트랙) 기업 중 라파스, 올리패스, 라파스, 신테크바이오, 리메드 등은 목표 희망가 하단보다 낮은 공모가로 상장을 진행했다. 당시 유통시장이 좋지 않은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적자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방증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례상장을 고심하는 기업들의 경우 현재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관사 입장에서 그만큼 더 난이도가 있는 작업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예탁원 사장 이명호 내정설... 노조 “낙하산 반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임추위 29일 후보 추천 앞두고 노조 반발 내홍 조짐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특정 인사의 내정설에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이 ‘낙하산’ 사장 내정을 취소하고 후보 재공모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명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예탁결제원 신임 사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문위원은 행정고시 33회로 금융위원회에서 증권감독관, 자본시장과장, 행정인사과장, 자본시장조사 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현 이병래 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22일 끝났는데 예탁원은 다음 날인 23일에야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사장 후보자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임추위는 29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한다. 주총 의결과 금융위 승인을 거쳐 사장이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 수석위원과 함께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FIU), 유광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이 예탁원 사장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김 원장과 유 수석부원장, 김 전 금감원장 등은 이번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해문 예탁원 노조위원장이 지원했다고 밝히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 수석위원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문이 전해지며 예탁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예탁원 지부는 제해문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사장 재공모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사장 공모 절차에 대한 모든 과정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채, 낙하산 인사의 사장 만들기를 위한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엄연히 임원추천위원회라는 별도의 중립적 공식기구를 구성했음에도 금융위원회의 사인에 따라 관료 출신

신 특정인을 낙하산 사장으로 내리꽂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예탁원 임추위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낙하산 사장 후보내정을 취소하고 사장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예탁원이 설립된 1974년 이후 단 한번도 내부 승진 사례가 없이 모두 외부인사가 사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이다.

이병래 현 사장과 유재훈 전 사장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금융위 관료 출신들이 계속 맡아왔고 이번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 수석위원도 금융위 출신이다.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임시주총까지 10여 일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당 전문위원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지며 금융위나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마지막에 의외의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자회사 성장·유증’ 현금 대량 유입

상장사 재무 분석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가 자회사의 성장과 유상증자 성공에 힘입어 대량의 현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일진다이아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979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790억 원 규모의 순현금흐름 덕분에다.

해마다 현금흐름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복하며, 규모 역시 2017년을 제외하곤 수십 억 원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엔 달랐다. 현금 유입이 컸던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8월 유상증자로 조달한 730억 원이다. 이 중 600억 원은 3년에 걸쳐 자회사 일진복합소재의 지분 추가 취득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단기차입금과 정부보조금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등 재무활동 전반에 걸친 현금흐름은 5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활동에서도 200억 원 가까운 현금 유입이 있었다. 당기순이익의 성장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일진다이아의 3분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3.15% 증가한 121억 원이다.

주목할 점은 별도 당기순이익은 43억 원에 그쳐 되레 43.67% 감소했다는 사실이

일진다이아 현금흐름



작년 8월 유증 통해 730억 조달 일진복합소재 성장에 순익 늘어 현금자산 979억, 연말 대비 5배 ↑

다. 분업이 다소 주춤했지만 연결 자회사 일진복합소재의 성장 덕분에 현금흐름 역시 좋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일진복합소재는 일진다이아가 지분 86.9%를 보유 중으로 3분기 순이익은 70억 원, 흑자 전환했다. 앞서 일진다이아가 유상증자를 통해 출자를 한 곳 역시 일진복합소재인 만큼 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이는 현금을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을 그리는 모습이다.

매출채권이 줄고 매입채무가 늘어나는 등 운전자본에서의 변동도 있었다. 일진다이아가 매출채권 감소로 얻은 현금흐름은 83억 원, 매입채무 증가로 얻은 흐름은 66억 원으로 모두 전년과 비교했을 때 플러스로 전환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기관 연초부터 ‘팔자’ 행진... 3.7兆 순매도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주도 “연말 매수 물량 차익실현 나서 지수 하락 영향엔 제한적” 전망

연초 기관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관의 매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수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선물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지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부터 이날까지 기관투자자는 1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순매도 금액은 총 3조7138억6997만 원에 달한다.

주체별로 보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포함된 금융투자 기관이 12거래일 연속 3조2125억5572만 원을 순매도하며 매도세를 주도했다. 전체 순매도 금액의 86.5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밖에 투신

기관 순매수·도거래대금 추이

투자기관	순매수 거래대금
금융투자	-3조2126억 원
보험	-747억 원
투신	-2397억 원
사모	74억 원
은행	-280억 원
연기금 등	-1810억 원
기관합계	-3조7139억 원
개인	1조8319억 원
외국인	1조7956억 원

※출처: 한국거래소, 1월 2일~17일

과 연기금은 각각 2396억4964만 원, 181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보험도 746억9501만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전문가들은 배당차익을 위해 지난 연말 매수했던 물량을 정리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배당차익거래란 배당이 없는 선물과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현물을 매수해 배당금을 받고, 이후 관련 매물을 출회하는 투자 전략으로 주로 금융투자 기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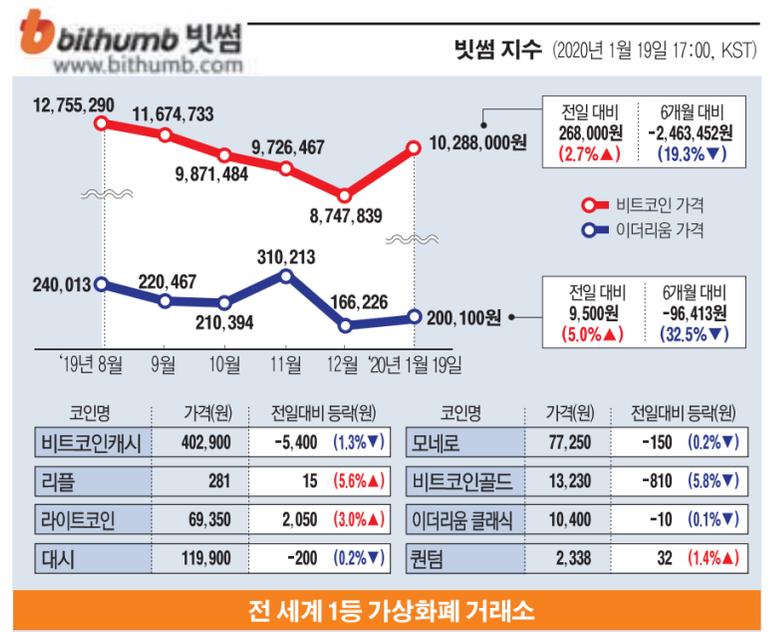
중심으로 이뤄진다.

실제 2013년 이후 기관은 연초마다 매도세를 이어왔다. 통상 1월 읍선 만기일까지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됐다. 2018년에도 연초부터 12거래일간 금융투자 기관은 홀로 1조757억6942만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이 영향으로 기관 전체가 4조1477억8231만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다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읍선 만기일(1월 9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 기관은 읍선 만기 다음날인 10일 3874억5005만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매도 폭을 키웠다.

기관 매도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매수한 물량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기업 배당성향 개선·거래세 인하 등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전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기관은 지난해 매수 물량을 대폭 늘렸다.

이다원 기자 leedw@



해외수주 바닥쳤나... 연초 4兆 책꽂이에 낙관론 '솔솔'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잇단 수주 작년 총액 추정치의 15% 달해 美·이란 갈등 불확실성 남았지만 중동 국가 재정 회복에 발주 기대

국내 건설사 연도별 해외건설 수주액 추이 (단위 : 억 달러) *2019년은 추정치



은 2조1000억 원이다. 새해 시작 보름여 만의 쾌거다.

삼성물산도 이달 1조9000억 원 규모의 방글라데시 국제공항 확장공사를 따냈다. 후지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두 곳과 함께 작업한 결과로 총 공사비는 2조8000억 원을 넘어선다. 이로써 두 건설사의 연초 대형 프로젝트 수주액은 총 4조 원에 달한다. 전년 해외수주 총액 추정치인 26조 6600억 원(약 230억 달러)을 기준으로 할 때 15% 달하는 수치다.

국내 건설사들은 2010년 수주액 716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주 강국으로 우뚝 섰지만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나마

2018년 321억 달러 수주를 기록하며 3년 만에 300억 달러를 돌파해 반등의 불씨를 지켰지만 지난해엔 200억 달러를 가까스로 넘을 만큼 수주절벽에 시달렸다. 13년 만에 최저치다.

해외수주가 바닥 수준까지 떨어진 건 중동 국가들이 석유에 의존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려는 탈석유화 움직임과 그로 인한 발주량 감소, 저유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서다. 국내 건설사들이 2009~2011년 수주한 중동 프로젝트가 2013년부터 대거 손실로 나타나면서 뼈 아픈 수업료를 치른 뒤 수주 전략을 보수적으로 바꾼 것도 수주절벽 요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올해도 해외수주 규모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텃밭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큰 데다 연초 불거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소 빨리 진정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손태홍 건설산업연구원 미래기술전략연구실장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소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뒤집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며 "불안한 중동 정세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의 탈석유 경제, 양보다 질을 택하는 건설사들의 소극적인 수주 전략으로 수주 규모가 크게 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저유가 시대에도 유가 수준이 60달러 안팎을 유지하며 극단적인 수준으로 낮아진 않고 있지만 중동 국가들이 발주 행렬을 이룰 만큼 높은 가격도 아니다. 해외 수주에 낙관론이 나오지 않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특히 국내 건설사들의 주요 수주 물량인 플랜트 발주는 유가의 움직임으로 방향이 갈린다. 일반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시기 플랜트 발주가 늘어나고, 유가가 하락하면 발주 규모는 축소된다.

그러나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중동국가들의 재정이 올해보다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이에 발주량이 작년보다는 소폭이나마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카타르 LNG,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등 대형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어 해외 수주에 거는 기대감이 낮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 등 중동국가들이 자국산 제품과 서비스, 인력 등에 대한 요구를 강력하게 내세우는 약세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자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라는 요구가 강해지면서 원가 부담이 늘어나고 중동 진출 진입장벽이 높아졌지만 이미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거나 입지를 굳힌 기업에는 오히려 유리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규제 강화에 봄 이사철까지 서울 전세시장 '설상가상'

수급 불균형에 전셋값 상승 지속 강남·목동 학군지역 호가 뛰어 오늘 전세대출 규제 본격 가동 "전세시장 또 한 번 출렁일 수도"

설 이후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12·16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전세공급이 줄고 있는 가운데 후속 대책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까지 제한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가뜩이나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남발된 부동산 대책이 수급 불균형

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1%로 매매가격 상승률(0.04%)을 훌쩍 웃돌았다.

강남과 목동 등 주요 학군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강남구(0.23%)는 대치·일원동, 서초구(0.22%)는 반포·서초동 등 인기 학군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며 양천구(0.33%)도 목·신정동 위주로 올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겨울방학 이사철이 끝나고 학군수요가 소진된 상태지만 여전히 시장에 매물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매하려는 수요자들이 임대시장에 머물면서 전세 수요는 커지

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주간 전세가격지수가 100.5(13일 기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200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실제 전세거래 현황을 살펴봐도 전셋값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 전세가 지난달 15억 원에 거래된 것이다.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전용의 전세가는 13억8500만 원이었다.

목동의 경우 전세 매물이 동이 나면서 실거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호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목동2단지 전용면적 95㎡ 전셋값은 지난달 8억700만 원을 나

타냈는데 이는 지난해 7월(6억 원)보다 약 2억 원가량 오른 수준이다. 이달 현재 호가는 이보다도 2000만~3000만 원 높은 수준이다. 목동 3단지의 전용 95㎡의 전세는 10월 6억5000만 원에서 12월 8억 원으로 1억5000만 원이 오른 가운데 최근 호가가 5000만 원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오늘(20일) 전세대출 규제 시행을 기점으로 12·16 대출 규제가 본격 가동되기 때문이다.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 1주택 갭투자자를 겨냥한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분양시장 임시휴업 돌입 내달 1일부터 신규 분양

설 연휴를 맞는 1월 넷째 주 분양 시장은 임시휴업에 돌입한다. 청약시스템 이관으로 신규 분양이 없어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곳도 없다. 신규 분양은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면서 이달 말까지 중단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감정원에서 신규 분양을 공고한다.

금융결제원은 작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모집공고를 받았다. 해당 신규 분양과 관련한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 청약 제반 업무를 16일까지 수행했다. 17일부터 발생하는 예비입주자 등 추가 업무는 감정원에서 맡는다.

서지희 기자 jhsseo@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필상식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 알과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대안을 알고 싶다면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X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매뉴얼이자, 후속한 성장설계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제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현업에서의 책임감에서 출발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적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쾌리드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히려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랑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정책, 제도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48면 | 148쪽 | 2019년 12월 14,8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지식을 얻는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멍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될뿐,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영호 저 | 232쪽 | 4800원 | 215.800원

檢 오늘 중간간부 인사위... 추·윤 의견 조율?

대규모 물갈이엔 검사 반발 예상 직제개편안 내일 국무회의 상정 반부패3부는 직접수사 기능 남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직제개편에 후속 인사까지 '추미애 발(發)' 검찰 대수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직제개편은 검찰 의견을 일부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대규모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에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인사위원회 개최는 8일 이뤄진 고위 간부 인사 후속 인사를 위한 것으로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논의를 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실무선에서 사전 협의의 진행 중이지만 '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할 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최근 대검은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각 과장 등 부장검사급 의견을 취합해 '전원 유임'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34조 1항인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사 확정 전 윤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앞서 8일 고위 간부급 인사 논의 당시에는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어났다. 대검은

인사안이 없는 상태로 인사위원회 30분 전 윤 총장을 호출한 것이 '요식 절차'라고 반발하며 응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를 '항명'이라고 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간간부 인사는 (총장과 장관 간) 면담 사안까지는 아니지만"이라며 "의견 교환 시기나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면담이) 인사위원회 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 모른다"며 "면담 일정은 아직 이야기 나올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번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추 장관이 '윤석열 사단'을 배제한 것을 두고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일선 수사팀을 대폭 교체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50·사법연수원 29기) 3차장검사·고형근(49·31기) 반부패수사2부장과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신봉수(49·29기) 2차장검사·김태은(48·31기) 공공수사2부장 등이 거론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검찰 무

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홍승욱(47·28기) 차장과 이정섭(47·28기) 형사6부장도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인사에 반발한 검사들의 줄사표와 내부 반발이 재현될 수 있다.

검찰 직제개편안은 2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려 했으나, 대검청장이 반대 의견을 내자 이를 반영해 일부 부서는 유지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형사부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중앙지검 반부패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명칭을 변경해 직접수사 기능을 남겨줬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도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해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하고,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바꿔 관련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인사발령은 직제개편안이 확정된 후 이르면 2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빙어 낚는 강태공들

강원 인제빙어축제 0트째인 19일 오후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얼음 낚시를 즐기고 있다.

서울혁신파크에 시립대 제2캠퍼스·서울研 들어선다

국내 최대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의 중추 기지인 서울혁신파크에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서울연구원 등이 들어서면서 '글로벌 사회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진화한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시설은 서울혁신파크 부지 총 11만234㎡ 중 지하철 3호선 불광

역과 인접한 전면부 시유지 약 1만5200㎡를 활용해 건립한다. 2022년 하반기 착공해 2025년 초 준공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신규 시설 건립 비용을 1350억~1500억원(토지비 제외)으로 추산했다.

우선 서울시립대학교의 제2캠퍼스인 '은평혁신캠퍼스'가 불광역과 인접한 전면부에 연면적 약 1만5000㎡ 규모로 조성된

다. 자유융합대학 교양교육부 일부와 혁신인재 교육과정을 추가한 교양대학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서울혁신파크의 우수 자원과 연계해 사회혁신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건립을 추진 중인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도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핵심 전략의 하나로 서울혁신파크 내 이전 계획을 발표한 서울연구원까지 3개 기관 관련 시설 건립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립대학교 은평혁신캠퍼스와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조성, 서울연구원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교육·연구 시설이 부족한 서북부의 고민을 상당 부분 해결하고 청년층의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25·26일 지하철 등 새벽 2시까지 운행

서울시, 설 특별교통 대책

서울시가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귀성·귀경객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19일 서울시는 "삼야귀성·귀경객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한다"며 "도시고속도로 교통예보 서비스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는 한편,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먼저 귀경객이 집중되는 설 당일(25일)과 다음날(26일)엔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을 늦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행하기로 했다. 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은 종착역 도착 시간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같은 날 시내버스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기차역 5곳(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청량리역·수서역) 및 버스터미널 4곳(서울고속(센트럴시티)·동서울·남부·상봉터미널)을 경유하는 129개 노선이 대상이다.

버스의 경우 주요 기차역과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앞 정류소(차고지방면) 정차시간을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울폐미버스 9개 노선과 심야 전용택시 3000여 대도 연휴 기간 내내 정상 운행해 밤늦게 서울에 도착해도 시내 이동에 불편이 없을 전망이다.

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25일, 26일 이틀간 용미리(774번)·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도 평일·토요일 수준으로 운행 횟수를 늘린다. 설경진 기자 skj78@

BRAVO My Life

Well Aging

재미 공감 위로

BRAVO My Life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올 기준금리 동결 유력... '불편한 동거' 4월까지 계속



김남현의 **알가일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내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명의 금통위원이 대거 교체되기 직전인 4월까지의 불편한 동거를 계속할 전망이다. 개성 강한 금통위 멤버들로 인해 시각을 좁히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새롭게 구성될 금통위원 멤버들은 비둘기파(통화완화)보다는 매파(통화긴축) 쪽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 드라마틱했던 1월 금통위, 경제 부진 일부 완화 vs 인하 소수의견 2명 = 17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는 반전의 반전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기준금리 결정에 민감한 채권시장 역시 장중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 같은 조짐은 금통위 개최 전날부터 있었다. 한은 동향보고회의가 끝난 금통위 전날 오후 무렵, 이번 금통위에서는 인하 소수의견이 한 명이거나, 아예 만장일치로 동결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간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다수의견)는 인하의견 두 명이었던 것이다. 이는 직전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신인석 위원이 명시적으로 금리인하를 주장한 데다, 조동철 추정 위원이 "작금의 거시경제 상황에 맞추어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그 시점은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지난 통화정책 결정회의 의결문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다음 회의로 이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었기 때문이다.

금통위 당일 날에도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금통위 개최에 앞서 잠시 공개된 자리에서 조동철 위원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선, 4월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을 앞두고 평상시 "이제 말년"이란 말을 자주해왔던 조 위원이라는 점에서 조용히 임기를 마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반면, 임기



가 얼마 안 남았으니 평소 지론대로 빨리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말은 후자에 손을 들어줬다.

금리동결이 예상됐던 금통위였다라는 점에서 비교적 이른 시각인 오전 9시 51분 금리동결 결정이 발표됐다.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 있었던 일. 이후 금통위가 내놓은 '통화정책방향(통방)'은 긴장감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했다. 우선 국내 경제 부진이 일부 완화됐으며, 경제성장(GDP)과 소비자물가 전망 경로가 지난해 11월 한은 전망경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고, 가계대출도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고 명시했다. 이는 직전 통방 문구보다 우려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점에 대비해 보면 전날 돌았던 만장일치설까지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반전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나온다. 인하 소수의견이 조동철·신인석 위원이었고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는 2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 2008년 5월 데자뷰! 인하의견 2명 실제 인하로 이어진 않을 것 = 인하의견이 두 명이나 나왔지만 실제 인하로 이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례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8년 5월이 그 예다.

당시 최도성·강명현 위원이 경기둔화가



한국은행 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결과적으로는 신인석 위원에 이어 조동철 위원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내용적으로는 경기개선과 집값 우려에 대한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사진은 17일 1월 금통위에 앞서 이주열(가운데) 한은 총재와 신인석(왼쪽)·조동철 위원이 미소 짓고 있는 모습.

금통위, 예상 깨고 '인하' 의견 두 명... 실제 인하 가능성 적어 4월 위원 4명 교체... 'KDI 편중' 지적에 민간 출신 기용 전망

능성과 물가 하향 안정세 등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이들 위원 외에도 명시적이진 않았지만 몇몇 위원들도 금리인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반면, 기준금리는 그해 8월 전격적으로 인상된다. 5월 분위기와는 180도 달라진 셈이다. 국내 경기는 내수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며 둔화하고 있고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지만, 소비자물가는 고유가 영향 파급 등으로 상승세가 한층 확대됐고, 상당 기간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인상에는 강명현 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내며 반대했다.

한편, 지금의 금통위원들은 자신의 색깔이 명확하다. 대표적 인물로는 비둘기파인 조동철·신인석 위원과 매파인 이일형 위원이 있다. 우선 조동철·신인석 위원은 한은 법에 명시된 한은 제1 목표인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금리결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 물가안정목표치가 2%인 상황에서 올해 물가전망치 1%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신인석 위원은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현재의 물가전망을 감안하면 현재의 기준금리가 시사하는 실질금리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중립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재 통화정책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좀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일형 위원은 1차적으로는 재정정책을 펴면서 근본적으로는 구조개혁에 힘을 때라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는 작년 11월 금통위에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계속 하락하면서 지속될 내수부진과 물가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보다는 이런 하락 기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이라며 "구조개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재정

정책으로 보완해 주고,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며 정책효과를 주시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차기 금통위원 KDI 편중에서 다양화로,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 4월 21일 네 명의 금통위원이 새롭게 임명될 예정이다.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다섯 명의 금통위원 중 네 명이 한꺼번에 교체된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총선 등 정치적 일정 등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후임 금통위원들의 면면을 유추하기는 쉽지 않다. 앞서 2일 이주열 총재가 한은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다론회 자리에서 금통위원 연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또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차기 금통위원들은 출신 면에서 좀 더 다양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그간 금통위원 면면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인사들로 편중됐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인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임명한 임지원(2018년 5월 취임) 위원은 JP모건 출신 인사다. 민간 투자는행(IB) 출신이 금통위원이 된 첫 사례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의외의 출신이 금통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대규모로 교체하는 금통위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정책이 '빛내서 집 사라'는 소위 초이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의 합성어)에 집중하면서 성장에 중심을 뒀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장 못지않게 분배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집값 잡기에도 나섰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인하론자보다는 중립 내지 금리인상론자가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치과계의 적폐를 파헤치는
치과의사 K의 외로운 전쟁



본격 치과 담합 리얼 스릴러

임플란트 전쟁



[본문 내용 중...] 무엇보다 앞으로 협회에서 정한 수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벌어진 얼굴을 한 갸머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하고 있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던 그는 늦게 들어온 광호를 잠깐 쳐다봤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시선을 내렸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환자들이 보기 위해 가격이 싸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표현도 전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협회에서 정한 수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민원 건 취소해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는 이미 숙이고 있던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인사했다.

고광욱 지음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_{yd}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최적화 기술 적용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 - 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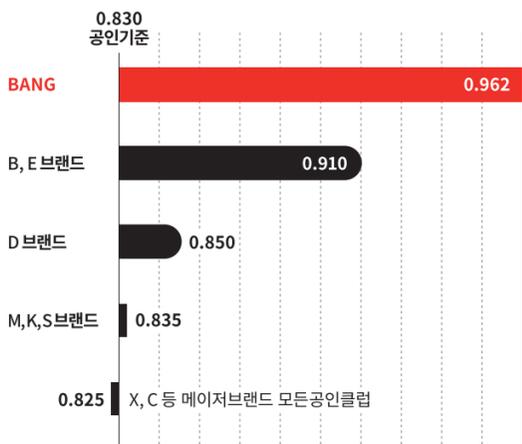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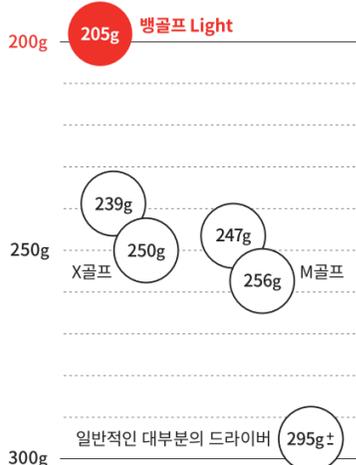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고반발 기술 격차



경량화 기술 격차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획일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무게 (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패션덕질을 사업으로... ‘덕업일치’ 이뤘죠”

위메프 신규 파트너사 매출 1위...박주현 퍼스트몬드 대표

쇼핑하려 돈 벌던 청년이 이제 어엿한 인터넷쇼핑몰 경영자 수수료·서버비 감면 위메프 파트너사 지원 프로그램도 한몫

‘덕업일치.’ 좋아하는 일로 돈까지 번다는 뜻이다. 퍼스트몬드의 박주현(29·사진) 대표를 설명하기에 이보다 적합한 사자성어는 없다.

학창 시절 패션에 미쳐 있던 그는 현재의류 브랜드 2개를 운영 중인 어엿한 쇼핑몰 대표로 성장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새롭게 론칭한 여성이류 브랜드 ‘무드모먼트’를 ‘위메프’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2000여 개 신규 파트너사 가운데 ‘무드모먼트’가 매출 1위를 기록했다.

그의 ‘패션 덕질’ 시작한 인터넷 쇼핑몰이 막 생겨났던 2000년대 중·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대표는 학생 신분이었지만, 쇼핑하기 위해 밤새워 일했고 그렇게 번 돈을 모두 옷 사는데 쓸 만큼 패션에 미쳐 있었다.

그는 “중·고등학교 때 인터넷 쇼핑몰이 붐이었다. 이곳저곳 막 생겨나던 때라 패션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됐다. 학생

이었지만 옷을 사기 위해 새벽까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했고 그렇게 번 돈을 모두 옷 사는데 썼다. 마음 같아선 당장 쇼핑몰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집안 여건상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신 스무 살 성인이 되자마자 그는 작게나마 의류 쇼핑몰을 시작했고, 사업을 좀 더 키우고 싶은 마음에 산업체에서 군 대체복무를 했다. 박 대표는 “사업자금을 모으려고 일부러 자격증까지 따서 산업체에서 군 복무를 대체했다. 거기서 번 돈으로 스물다섯 살에 남성이류 쇼핑몰을 차렸는데 도매상을 거쳐 옷을 팔다 보니 마진이 적었고, 기대만큼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그가 택한 방법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바로 물건을 들여오는 것. 그러려면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그는 ‘위메프’의 신규 파트너사 지원 프로그램 덕에 자금 걱정 없이 대량 구매를 할 수 있었다



고 말한다. 박 대표는 “대부분 유통업체는 판매 수익 정산을 한 달 뒤에 해주는데 위메프는 신규 파트너사에 일주일마다 정산해주는 혜택을 준다. 그래서 자금을 바로바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쇼핑몰 수수료는 10%대로 높지만, 위메프는 신규 파트너사에 4%대의 저렴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렇게 자금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니 중국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키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부터 파트너사 상

생 프로그램인 ‘신규 파트너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위메프에 신규 입점하고 상품을 등록하는 파트너사는 △판매 수수료 4% 적용 △서버비 면제(월 9만 9000원) △1주 정산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노출 지원 등 4대 주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메프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 후 신규 입점한 파트너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해 6000곳을 넘어섰고, 월 거래액 기준 1000만 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파트너사는 77개사, 이를 넘어 1억 원 매출을 기록한 파트너사는 6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애초 이달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해당 프로그램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위메프 신규 파트너사 가운데 매출 1위 기록을 세우며 기분 좋은 시작을 했다. 그만큼 앞으로 기본에 충실한 사업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운영 중인 브랜드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패션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우리만의 패션,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美연준 이사 ‘공석’ 두 자리 트럼프, 비둘기파 2명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공석이던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이사에 비둘기파 인사 2명을 지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전 미국 대표인 주디 셸턴(왼쪽 사진)과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의 크리스토퍼 윌러(오른쪽) 조사국장을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 모두 금융 완화에 긍정적인 ‘비둘기파’다. 인사를 통해 연준에 금융 완화 압력을 가하려는 트럼프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NYT는 “셸턴은 연준의 비평가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와 정책에 대한 지지를 트윗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윌러는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부총재와 조사국장으로서 주목을 받지 못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연준 이사 자리에 스티븐 무어와 허먼 케인 등 비둘기 성향의 경제 평론가이자 전직 사업가들을 지명했지만, 모두 금전 스캔들 등으로 후보에서 사퇴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SK이노 ‘스키노맨’ CES 소개 영상 유튜브서 인기몰이

계열사 홍보실 막내사원 4명 프로젝트팀...조회수 10만회 넘겨

SK이노베이션은 ‘스키노맨(SKInnoMan)’이 ‘CES 2020’ 현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기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스키노맨은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인전석유화학 등 SK이노베이션 계열 홍보실 막내 사원 4명이 회사를 소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의기투합해 만든 프로젝트팀이다.

스키노맨은 개막 전날부터 CES 전시관의 SK 부스에 입장해 주요 전시 콘셉트를

미리 공개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조회수 10만 회를 돌파했다. 전시 개막일부터는 SK이노베이션 계열사들이 꾸린 부스에서 이번 전시의 핵심 주제인 ‘SK Inside’ 및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이들은 전시장을 방문한 경영진을 발견하고 즉석 인터뷰를 시도하고 셀카도 찍었다.

CES 전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SK이노베이션을 소개하고 사진 촬영 이벤트 등을 통해 사은품을 즉석에서 증정하는 등 회사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스키노맨은 CES에 참가하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부스를 직접 방문해 각 사에서 내세우는 첨단기술과 미래 모빌리티 트렌드도 소개했다.

스키노맨들은 “CES 현장을 처음 찾는 입장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으면서 유익하게 전달하기 위해 고민했다”며 “혁신과 경쟁의 최전선인 CES에서 발로 뛰며 제작한 콘텐츠를 많은 분이 흥미롭게 봐준다면 보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SK이노베이션의 계열사 막내 사원들로 구성된 ‘스키노맨(SKInnoMan)’이 ‘CES 2020’에서 제작한 유튜브 영상들.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한인 2세’ 제인 김 前 시의원 샌더스 加州 선대본부장 맡아



재미동포 2세인 제인 김(한국명 김정연·41·사진) 전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이 미국 민주당 대권 후보인 버니 샌더스 후보의 캘리포니아주 선

거대책 총괄본부장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고 19일 미주한국일보가 전했다.

로스앤젤레스와 북캘리포니아주에서 샌더스 후보의 선거 캠페인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 총괄본부장은 “2016년 대선 때부터 ‘진보 정치의 아이콘’인 샌더스 후보를 지지해왔다”며 “지난해 2월 후보 측 요청으로 캠프에 합류해 4개월 뒤 주 선거 대책 총괄본부장에 임명됐다”고 말했다. 뉴욕에서 태어난 그는 스탠퍼드대 정치외교학과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LA) 로스쿨을 각각 졸업했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에 당선돼 공직 생활을 했고, 2010년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에 당선된 뒤 4년 뒤 재선했다. 홍석동 기자 hong@

‘삼성 클럽 드 셰프 코리아’에 ‘모던 한식’ 신창호 셰프 합류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최정상 셰프들로 구성된 ‘삼성 클럽 드 셰프 코리아(Samsung Club des Chef Korea)’에 모던 한식 레스토랑 ‘주옥’의 신창호(사진) 셰프가 합류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창호(사진) 셰프가 합류한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3년 세계적 미쉐린(미슐랭) 스타 셰프로 구성된 ‘삼성 클럽 드 셰프’에 이어 2015년 국내에서 ‘삼성 클럽 드 셰프 코리아’를 출범시켰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셰프들의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프리미엄 주방 가전에 접목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가치 있는 식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 왔다.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셰프컬렉션’ 냉장고의 미세정온, 직화오븐의 직화열풍 등이 ‘클럽 드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대표적 혁신 기술이다.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신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주옥’은 문을 연 지 1년 6개월 만에 미슐랭 가이드 1스타로 선정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 셰프는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 발효 식품인 장과 절절 식재료를 기반으로 독창적인 한식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권태성 기자 tskwon@

에너지공단·GS리테일 ‘에너지 절약’ 맞손

‘문 닫고 냉난방’ 등 동참키로

한국에너지공단과 GS리테일은 17일 GS리테일 본사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GS리테일은 자사 편의점과 화장품가게 등 전국 1만4000여 개 상점에 ‘에너지 절약 착한 가게’ 스티커를 부착하고, 자발적으로 ‘문 닫고 냉난방 영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GS리테일은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

서 △실내 적정온도 준수 △LED 조명 설치 △영양종료 후 옥외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전국 매장 내 벽면 스크린, POS 단말기, BGM 방송 등 다양한 홍보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에너지공단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GS리테일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전사적 차원의 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 5%, 에너지비용 80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김창섭(왼쪽)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조윤성(오른쪽) GS리테일 사장이 17일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을 맺은 후 조정숙 GS25 역삼 프리미엄점주에게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1호점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에너지공단

인사

- ◆기획재정부 ◇실장급 승진 △재정관리관 양중모
-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농산업정책과장 송남근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동부지청장 김태현 △부산지청장 공석원 △성남지청장 장영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소장 최상일 △전주지청장 김영규 △여수지청장 정영상 △청주지청장 김우동 △중양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정병팔
-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윤중호
-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승진 △중소기업정책실장 변태섭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영신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선중규 △기획재정담당관 남동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인민호
-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준오 ◇고위공무원 나급 △인천지방국세청장 구진열 △대구지방국세청장 최시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송기봉 △ 국세조사관 노정석 △ 개인납세국장 김진현 △ 자산과세국장 김태호 △ 조사국장 임광현 △ 소득지원국장 이창룡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송바우 △ 조사2국장 정재수 △ 조사3국장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최재봉 △ 조사2국장 이동운 △ 조사3국장 신희철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훈호 △ 조사1국장 안덕수 △국세청 민주원
- ◆조달청 ◇국장급 전보 △구매사업국장 강

- 신면 △서울지방조달청장 강경훈 ◇과장급 승진 △조달회계팀장 오선진 △건축설비과장 유원형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장 김삼환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장 전현철 △인천지방조달청 자체구매과장 이명렬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오연철 ◇과장급 전보 △공정조달관리과장 조진석 △정보기술계약과장 노배성 △건설운영과장 김연일 △국유재산기획과장 김태연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 유순재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장 이창호 △강원지방조달청장 신동준 △충북지방조달청장 이진규 △경남지방조달청장 정현수
-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임용 △항공기상청장 손승희 ◇3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정현숙 △대전지방기상청장 박훈
- ◆한국금융연구원 △기업부채연구센터장 이보미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번 CES에서는 자동차 회사 도요타가 스마트시티에, 전자회사 소니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참여하는 이른바 사업의 영공침범(領空侵犯)으로 지금까지 유지해온 일본의 영역분할형 기업문화가 사라지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은 미국·중국·한국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가운데 '대립 없는 경쟁' 전략으로 힘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새해 벽두부터 화제를 모으는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언론의 톱기사를 차지하고 있다. 중동 정세, 홍콩 시위,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이슈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는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인공지능(AI)과 차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등의 디지털 혁신기술이 세계인의 눈길을 끌었다. 그래서인지 10일 전시회가 끝난 뒤 2020년의 트렌드와 주요 기업의 전략을 분석하려는 소위 리뷰(review) 모임이 활발하다.

이번 CES에는 전 세계에서 모두 4500개의 기업이 참가했다. 이 기업들이 전시한 기발한 기술의 대다수는 시장에 등장하지도 못한 채 모습을 감춘다. 이 때문에 CES의 권학 가치에 대해 의문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기업 간부들은 CES를 중요한 상담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3개월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CES가 열리는 3일간 접촉할 수 있는 기

업과 제휴선 후보가 많다는 얘기도 있다.

외신을 분석해 보면 이번 CES에서 일본 기업들의 전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랜만에 주목을 끌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변혁에 도전하는 도요타와 소니의 전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도요타자동차와 소니는 디지털 시대의 기업 변혁에 도전하는 자세를 세계에 어필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요타는 시즈오카현의 한 폐공장지에 약 2000명이 사는 '미래의 거리'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소형 무인기(드론) 등에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조합시킨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창출하는 실험장을 만드는 것이다. 도요타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업종 기업과 연구자들을 참가시켰다. 타사와 손잡고 기술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소니는 자사가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콘셉트 차를 CES에서 선보이면서 사업의 폭을 가전에서 자동차로 넓혀나간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소니는 디지털 카메라의 영상 센서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위를 인식하는 부품으로 자동차 대기업에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CES에서는 자동차 회사 도요타가 스마트시티에, 전자회사 소니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참여하는 이른바 사업의 영공침범(領空侵犯)으로 지금까지 유지해온 일본의 영역분할형 기업문화가 사라지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었다.

생명보험 등 디지털 기술과 관련이 적은 기업도 다수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디지털화에 대응한다는 의욕을 모처럼 보여주었다. 최근 수년 동안 CES에서 구글과 아마존 등 미국의 IT 대기업과 한국의 삼성전자 등의 활약으로 일본 기업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진전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은 미국·중국·한국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가운데 '대립 없는 경쟁(competition without conflict)' 전략으로 힘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자급력에서 월등한 미국의 IT 대기업들과 경쟁하면서 변

화가 빠른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이는 일본 재계의 총본산인 게이단렌(經團連)이 신년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기업이 생존하려면 변혁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흔들림 없는 의지와 대담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일본경제신문은 "일본 기업들이 CES에 들고 나온 비전을 실현해 수익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거기에는 먼저 디지털 시대에 적용할 자사의 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5G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AI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기술기반의 혁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업구조를 개혁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모든 기업에 공통되는 경영 과제다. 다시 말해 도요타와 소니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기업이 변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한국 기업의 지도자들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조에린의 벤처칼럼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경영학과 교수

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엔 벤처가 이해하여야 하는 디자인 특허 침해의 본질을 짚어보겠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디자인 특허는 가능성이 있는 물건에 적용된 시각적 외관과 그 구성요소와 조합의 창조성 및 고유성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이다.

디자인의 특허가 침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일반 관찰자 테스트(ordinary observation test)'에 있다. 즉 특허 침해는 '일반인의 눈으로 판단하여 디자인이 정확히 같지 않더라도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달려 있다. 미국에서도 사실 2000년대 중후반까지 디자인 특허의 침해를 결정하는 사항이 더 까다로웠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일반 관찰자 테스트와 더불어 디자인 특허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요소가 '신

규성 항목 테스트(point of novelty test)'를 넘어야 했기 때문이다. 신규성 항목 테스트는 특허를 받은 디자인 요소의 독특한 고유성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침해받은 디자인 특허의 특징이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디자인과 비교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는 침해당한 쪽에서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항목이었다.

그러나 2008년 손톱 연마기의 디자인을 놓고 벌어진 분쟁을 시작으로, 입증의 까다로운 신규성 항목 테스트 없이 일반 관찰자 테스트를 만족시키면 특허 침해를 증명하는 것으로 판례가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디자인 특허 침해 성립을 증명하는 어려움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특허 분쟁에서 소비자의 시각적 인지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더불어 특허의 요점이 디자인의 디테일적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로, 소비자가 구매 당시 서로 혼동할 수 있음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디자인 특허 분쟁에서 소비자의 총체적이고 주관적인 느낌, 그리고 실제 소비 상황에서 그런 인지가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 관련 법정 다툼에서도 소비자 인지 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예를 들면 애플 쪽에서 제시한 소비자 조사 결과 약 38%가 삼성의 스마트폰과 애플의 아이폰을 혼동했다고 나왔다. 이러한 인식이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 상황을 얼마나 반영한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는 특허 분쟁에서 소비자의 인지와 주관적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즉, 벤처 기술을 상품화하면서 디자인을 진행할 때, 소비자가 디자인 외관과 인터페이스 등을 주관적 총체적으로 기존 또는 경쟁 상품의 디자인과 어떻게 다르게 인지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테크놀로지 상품과 인터페이스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니멀리즘(minimalism) 디자인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소비자에게 생소한 상품일수록 디자인의 단순함이 강조되다 보니, 디자인을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와 범위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더불어 소비자가 이런 단순한 디자인을 인식할 때는 독창적 요소보다 전체적인 형태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구별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디자인이라는 시각적 요소와 상품의 의미를 접합시키는 것, 즉 디자인이 시각에 호소하는 것 이상으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하는 혁신의 의미를 담아내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디자인이 벤처의 혁신이 전하고자 하는 소비의 의미, 사회에서의 의미, 문화적 의미를 녹여낼 수 있을 때, 모더니즘적 단순 디자인 기조에서도 그 독특성과 고유성을 찾는 것이 용이해진다.

디자인 특허에서의 일반성과 신규성

이투데이, 말투데이

☆ 오드리 햅번 명연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할 말을 하라. 또한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자신이 혼자 견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 어라."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 대표작은 '로마의 휴일' '파계' '티파니에서 아침을' '마이 페어 레이디'. 할리우드 스타에서 국제적 외교사절로 변신한 그녀는 "내가 이런 얼굴을 가지고 영화에 출연하게 되더라도는 생각도 못 해봤다"라며 겸손해했다. 오늘은 그녀가 숨진 날. 1929-1993.

☆ 고사성어 / 백락일고(伯樂一顧)

명마(名馬)도 백락(伯樂)을 만나야 세상에 알려진다는 뜻이다. 재능 있는 사람도 그 재주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빛을 발한다는 의미. 원전은 전국책(戰國策). 말 장수가 말이 팔리지 않는다며 백락에게 보달라고 청했다. 최고의 말 감정가가 찬찬히 살피는 것을 보자 지켜보던 사람들이 구하기 힘든 준마(駿馬)라고 여겨 앞다투어 서로 사려 해 말값이 순식간에 경증 뛰었다.

☆ 시사상식 / 콜머니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상호간의 단기 대부·차입. '부르면 대답한다'는 식으로 극히 단기로 회수할 수 있는 대차이기 때문에 콜이라 한다. 공급자 측에서는 콜론(callloan), 수요자는 콜머니(callmoney)라 부른다. 콜은 주로 은행의 어음, 기말결산의 결제 등 단기자금 조달에 이용된다.

☆ 유머 / 피장파장

남편이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자 아내가 "또 술이야! 제발 당신 술값 좀 줄여!"라고 하자 "당신이나 화장품 좀 그만 사!"라고 했다. 열 받은 아내가 "내가 왜 화장하는 줄 알아? 당신한테 예뻐 보이려고 사는 거야!"라고 하자 남편의 대꾸. "내가 왜 술 마시는 지 알아? 나도 당신을 예쁘게 보려고 마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사수첩



김종용 사회경제부/deep@

소송비에 속박당한 공익소송

"공익소송 한 번 잘못했다가 패가망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공평한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변호사의 말이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서다. 이른바 '패소자 부담주의'다. 이는 공익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송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비용을 떠넘긴다.

패소자 부담주의는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3년 5개월간의 긴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총 8명 가운데 정부로부터 위

자료를 받게 된 피해자는 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소송은 부담이 더 크다. 일률적으로 소송 액수를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서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 별표를 보면 소송 목적의 값이 5000만~1억 원대에서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440만

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 1·2심에서 1300만 원을 부담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재판 비용을 면제해주는 '소송구조 제도'가 있다. 하지만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 재판은 당사자들이 대립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하는데 승소

가능성을 조건으로 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2018년 소송구조 신청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총 5999건 중 절반 이하인 2906건이 인용됐다.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기존의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끌어내야 하는 소송이다. 당연히 패소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이들에게 무거운 족쇄가 되고 있다.

미국은 '편면적 패소자 부담 주의'를 채택해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캐나다와 영국도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졌을 때 소송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뒀다. 사법 개혁이 그리 거창할 필요는 없다. 우리도 바꿔야 한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유료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우리 동네 ‘담배가게 아가씨’는

여느 동네 평범하고 친근한 모습의 가수 송창식 씨의 노래 중 ‘담배가게 아가씨’란 히트곡이 있다. 특이한 가사와 송 씨의 독창적인 창법, 익살스러운 음색으로 술자리나 MT에서 흥을 돋우는 주제곡 처럼 1990년대 사랑을 받았다.

“우리동네담배가게에는아가씨가예쁘다네...”로 시작하는 노래의 주 내용은 ‘숫기 없는 청년이 짝사랑하는 담배가게 아가씨가 있다. 수많은 총각이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퇴짜를 맞는다. 우연히 동네 건달들에게 둘러싸여 난관에 부딪힌 담배가게 아가씨를 발견한 한 청년이 용감하게 달려든다. 그는 건달들에게 흠뻑 두들겨 맞아가며 아가씨를 위기에서 구해낸다. 이후 둘은 사랑에 빠진다’는 얘기다. 이 노래의 마지막은 주인공 청년이 신바람 나서 담배가게로 향하며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며 끝을 맺는다.

몸에 좋지 않은 ‘담배’ 얘기라니. 다소 뜬금없는 얘기 꺼낸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 시장이나 우리 기업들이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담배가게 아가씨’처럼 매력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생겨서다.

그들이 묻는다면 한국이란 담배가게를 추천하고 싶다. 첫째 수치로 본 투자 가치다. 가치보다 푸대접이다. 현재 한국 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은 신용등급이 같은 국가들보다 20~30%가량 저평가된 상태다. 피치 기준 한국과 같은 국가 신용등급 ‘AA-’를 받는 주요 국가는 대만, 벨기에, 카타르 등이다. 미래도 장밋빛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께 한국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1362달러로 일본(4만1253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아시아-태평양 포트폴리

데스크칼럼

김문호
자본시장2부장



오 전략’ 보고서에서 “2020년 글로벌 경기회복과 기술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며 한국 기업의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이 2019년 -33%에서 2020년 22%로 반등할 것으로 봤다.

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담배들도 많다. 삼성전자는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 조사에서 브랜드 가치가 611억 달러(약 72조5000억 원)에 달했다. 순위는 6위였다.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디지털 선도 기업’에서도 3위에 올랐다. SK하이닉스(28위), (주)SK(60위), SK텔레콤(67위) 등도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도 외국인들은 왜 다른 담배가게로 발길을 돌릴까.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보다 13% 줄어든 233억 3000만 달러에 그쳤다고 한다.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없앤 것이 결정적이었다. 여기에 친노동 환경과 각종 규제는 외국인을 등 돌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이 비호한데도 투자 유치가 적다면 결국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라는 뜻이다. 증시에서 기업들이 제값을 못 받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삼성전자 PER는 12.93배였다. 주가가 EPS의 약 13배라는 의미다. 삼성전자 PER는 인텔(12.71배)과 비슷하며 TSMC(20.16배), 마이크론

(17.17배)보다는 낮다. 애플(21.1배)도 삼성전자보다 PER가 높았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지난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5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법정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같은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업은 더 험난한 경영 환경에 맞닥뜨리고 있다. 기업이 해외로 떠나면 일자리도 떠난다는 현실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쓴소리는 국내 기업환경의 답답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그는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 주최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라는 주제의 좌담회에서 “갈라파고스 규제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며 한국 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일갈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육지와 단절돼 독특한 동식물군을 이룬 갈라파고스 섬들처럼 국제 흐름과 동떨어져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규제를 뜻한다.

외국인 투자가 줄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가뜩이나 뒷걸음치는 일자리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나 총선을 앞둔 여야 모두 앞다투어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고용 주체인 국내의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건지, 이윤배반도 이런 이윤배반이 없다. 신(新)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규제와 기업 때리기로 기업들을 옥죄며 ‘한국에 투자하라’ ‘다시 돌아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kmh@

사설

그냥 쉬는 인구 사상 최대, 고용 더 나빠지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냥 쉬는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다. 통계청의 비경제활동인구 분석에서, 2019년 ‘쉬었음’ 인구가 209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23만8000명(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다. ‘쉬었음’ 인구는 만 15세 이상으로 일할 능력이 있지만,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않고 육아나 가사, 치료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경우로 통계상 실업자도 잡히지 않는다.

‘쉬었음’ 인구는 과거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젊은 층과, 직장에서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20대(17.3%)뿐 아니라, 30대(16.4%), 40대(13.6%), 50대(14.0%)에서 크게 늘어 60세 이상(10.3%) 증가폭을 앞질렀다. 경기 부진과 기업 활력 저하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20~50대의 취업기회와 고용 시장이 갈수록 악화하는데, 정부가 재정을 쏟아붓는 단기 저임금의 노인 일자리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정부는 취업자수와 고용률, 실업률 등의 지표가 좋아져 고용의 양과 질 모두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본 실제 일자리 사정은 정반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분석 결과도 그렇다. 작년 취업자 증가폭은 30만600명으로 전년(9만7300명)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종사자 5~299인의 자영업 및 중소기업 취업자는 3600명 줄었다. 이 수치의 감소는 2004년 이래 처음이다.

특히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이 종사자 1~4인의 소규모 사업장 고용이었고, 증가분은 23만3500명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는 겨우 7만700명 늘었다. 작년 자영업자는 560만56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3만2300명 줄어, 1995년 이래 24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유급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998년 이래 가장 큰 폭인 11만3600명 감소했다. 홀로, 또는 무급의 가족이 함께 일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01년 이후 최대인 8만1300명 늘었다. 결국 고용원 두고 영위하던 자영업자들이 대거 폐업하거나 사업 및 고용규모를 줄였다는 얘기다.

고용동향의 모든 분석은 일자리 사정이 여전히 최악임을 나타낸다. 모든 연령대에서 구직을 포기한 채 쉬는 인구가 늘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은 엄밀 부진과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들의 고용 여력이 갈수록 감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조업, 도소매 업종의 취업자가 큰 폭 줄어든 것에서 알 수 있다. 정부 주장처럼 고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나빠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상황진단부터 틀렸으니 일자리 정책도 어긋날 수밖에 없다.

박병립의 중립, 직립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새해 태양의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의 조정국면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경기가 사실상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한다.

국제 경제에 대해서 ‘경기 동반둔화’란 표현을 삭제했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조짐 속에 1단계 미·중 무역협약의 서명이 이뤄지고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으나, 미·중 협상의 향후 전개 상황과 경기회복 경기 회복 강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정책방향’과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자료를 내고 국내 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판단했다.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하겠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봤다.

수출 역시 감소세가 완만해지는 모습이 라고 진단했다. 실제 이달 1~10일까지 수

출은 13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6억6000만 달러) 늘었다. 조업일수(7.5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7억7000만 달러로,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늘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 해와 같았다. 다만 1월 수출은 설 명절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로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2월엔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며, 올해 수출은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대부분 경제 관련 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및 산업연구원은 올해엔 전년보다 0.3%P 상승한 2.3%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외국 기관인 IMF는 2.2%, OECD는 2.3%로 각각 0.2%P, 0.3%P 상승을 전망했다.

1월 1일 신문과 방송 등 다수의 언론매체가 새로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을 보도한다.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 새로운 출발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최근 발표되는 긍정적 신호가 국민의 희망을 현실로 이어줄 수 있길 바란다. ribly@

개 우리말 한 토막

고유 명절인 설이 다가왔다. 설 연휴가 시작되면 우리 가족은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간다. 온 가족이 밤늦도록 먹고 놀며 명절 흥을 맘껏 돋우는데, 이때 즐겨하는 놀이가 윷놀이와 고스톱이다. 윷놀이를 고스톱이든 판 사람은 설 준비로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 한턱을 낸다. 판 사람은 이겨서 좋고, 잃은 사람은 공짜로 먹어서 좋다.

윷놀이는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 한 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중국 ‘복서’와 ‘태평어람’에 백제 때 저포(오늘날 윷놀이)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전부터 조상들이 즐겼던 민속놀이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단어의 기원은 나무막대기 넷을 가지고 노는 놀이라서 도·개·겉·웃·모 중 넷을 뜻하는 ‘윷’과 ‘놀이’가 복합된 것이라고 사전은 소개하고 있다.

윷놀이는 농사와 연관이 있다. 윷판에서 말(馬)이 머무르는 곳인 도, 개, 겉, 윷, 모 자리를 ‘밭’이라고 하는데 각각 돼지, 개, 양, 소, 말을 상징한다. 이 가족들 모두 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이 머무르는 곳을 ‘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

윷놀이와 화투

면 하나의 말에 다른 말을 업은 경우는 동무니일까, 동사니일까. ‘동무니’가 맞는 말이다. 포개어진 말이 돌리면 동동무니, 셋이면 석동무니, 넷이면 녁동무니라고 한다. 동무니의 의미로 동사니를 쓰는 경우가 많으나, 동무니만 표준어이다. 동치기도 표준어가 아니다.

고스톱이나 윷백 등의 놀이를 할 수 있는 화투(花鬪)도 민속놀이 중 하나이다. 계절에 따른 술, 매화, 벚꽃, 난초 등 열두 가지의 그림이 각각 네 장씩 모두 48장이다. 화투는 포르투갈에서 일본을 거쳐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나라에 널리 퍼졌다. 한 때 화투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놀이라 하여 부정적 인식이 짙게 깔렸었다. 1950년대 이후 화투쪽의 색깔과 그림의 일부를 바꾸고,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 등 한국식 현지화 과정을 거쳐 오늘날 대중놀이로 정착했다.

이런 설에 여러분도 가족 모두 참여하는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겨 보면 어떨까. 웃음소리가 집 밖으로 퍼져나가고, 흥이 넘쳐나는 설 연휴가 되길 바란다.

신미라 편집부 교열팀 차장 kleinkind@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지갑을 깜빡해도 걱정없이
손만 대요

통장, 도장, 신분증 필요없이
손만 써요



이제부터 은행 갈 땐 간편하게
손만 챙겨요



[손으로 출금 서비스]
손바닥 정맥 인증 창구 출금 서비스

손으로 출금 서비스로 당신의 일상이 편안해집니다

누리세요, KB가 만드는 새로운 금융생활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b KB 금융그룹**